



주간통일정세 2009-38(2009.09.14~09.20)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9-38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자강도 희천발전소 건설장 시찰(9/17, 조선중앙통신)**
 -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중인 다이빙귀(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여부에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린 가운데 김 위원장이 자강도 희천발전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심야에 보도
 - 김 위원장은 희천1호발전소 룡림 언제(댐) 건설장과 희천2호발전소 언제 건설장을 시찰했으며, 군인 건설자들의 공사 속도가 “선군정치의 기초인 혁명적 군인정신에 바탕을 둔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소개
 - 통신은 김 위원장의 시찰 일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다이 국무위원의 김 위원장 면담 여부에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그가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자강도 지역을 시찰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됨.
 - 시찰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현철해, 리명수 대장을 비롯한 군 고위인물들과 박도춘 자강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박남기, 장성택 당 부장들이 수행
 - 김 위원장은 지난 3월에도 희천발전소 건설장을 현지지도 했었음.

- **김정일, 평북도 기업소 현지지도(9/1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안북도의 북중기계연합기업소와 락원기계연합기업소를 잇달아 현지지도하고 기업소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
 - 김 위원장은 북중기계연합기업소를 둘러본 뒤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기계생산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굳건히 축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소를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줄기차게 내미는 동시에 최신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데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언급
 - 이어 락원기계연합기업소를 방문해 산소분리기공장 등을 둘러보고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산소분리기를 제때에 생산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최첨단기술에 기초한 기술개건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
 - 시찰에는 김평해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장성택 당 행정부장, 박남기 당 중앙위 부장 등이 동행



● **김정일 꽤 건강, 통치력 건재(9/20, CNN방송)**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상당히 건강한 상태며, 북한에 대한 통치권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고 밝힘.
- 오바마 대통령은 CNN방송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8월 방북 결과를 토대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에 대해 이 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언급
-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 사람들과 잦은 교류가 없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건강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클린턴 전 대통령은 그(김 위원장)를 가까이에서 보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고 설명, 오바마 대통령은 “더 이상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다”면서 “그러나 한 때 사람들은 김 위원장이 (권좌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냐는 생각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지금) 김 위원장은 다시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고 언급

● **김정일 관찰 결과 건강 상당히 양호(9/17, 조선일보)**

- 미국은 빌 클린턴(Clinton) 전 대통령의 8월 방북 때 동행했던 주치의(主治醫)의 면밀한 관찰을 토대로 ‘김정일 위원장이 건강 이상에서 회복 중이며 현재는 안정상태’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짐.
- 클린턴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는 그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로저 밴드(Band) 펜실베이니아대 의대 교수가 동행, 응급의학 전문의인 밴드 교수는 방북 전에 미 행정부 관계자들로부터 김 위원장을 만나게 될 경우에 대비한 ‘교육’을 받았으며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에 필요한 김 위원장의 치아와 안색(顔色), 머리카락, 두피, 발음, 손발의 움직임, 체중 등에 대해서 정밀하게 관찰할 것을 요청했었음.
- 클린턴 전 대통령은 북한과 사전 접촉을 할 때 장거리 해외여행을 할 때면 반드시 의사를 동행시킨다고 주장했고, 북한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함.
- 티머시 키팅(Keating) 미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15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이런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 그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이 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 “미국에는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가져왔다”고 언급하고 “김정일은 꼳꼳하게(upright) 서 있었다. 그는 클린턴 전 대통령과 말할 때 조리 있게 말했으며, 논리적 토론을 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설명
- 키팅 사령관은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의 후계 계획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언급

● **김정일 건강, 실제로는 악화(9/16, 열린북한통신)**

- 2008년 8월 중순께 뇌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졌다가 재기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겉으로는 비교적 회복된 듯이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악화되고 있다”고 대북 라디오방송인 열린북한방송의 온라인 소식지 ‘열린북한통신’이 16일 주장

- 소식지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 김 위원장이 최근 방북 인사들을 만나고 건강이 좋아진듯한 모습을 보여준 데 대해 “외부를 겨냥해 연출된 쇼일 뿐 김정일의 건강은 더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
- 소식지는 우선 김 위원장의 뇌졸중에 대해선 “상태가 회복됐다고 한다”며 “지난 7월 이전 김정일은 주변에서 부축을 해야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육체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좋아졌다”고 주장, 그러나 “뇌졸중 후유증보다 더 심각한 것이 올해 5월에 당뇨합병증으로 만성신부전증이 악화돼 신장 투석을 1주에 2~3회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라고 소식지는 주장하고 “투석을 받기 직전에는 몸이 시들시들하고 투석을 받으면 다시 몸이 회복되는 상황”이라고 설명
- 소식지는 또 “김정일의 건강이 악화되자 주치의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권고하고 있으나 (김 위원장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고 주장
- 소식지는 김 위원장이 “정신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잠깐 보면 괜찮아 보일 수는 있어도 뇌졸중을 앓은 이후 가벼운 우울증에 걸려 있다”며 술과 담배를 다시 시작한 것도 건강회복 때문이 아니라 “이런 우울증의 결과”이며 “중요한 정책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시간적으로 초조한 모습을 보인다”고 전언, 특히 흡연의 경우 김 위원장은 금연했다가 지난해 8월 쓰러지기 1-2년 전부터 다시 흡연을 재개했던 것으로 알려짐.
- 소식지는 “고위간부들 사이에선 김정일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말이 떠돈다”고 주장, 소식지는 김 위원장이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 강성대국이 된 뒤 그 유산을 후계자인 아들 김정운에게 물려주고” 싶어 “건강에 별 문제가 없음을 과시하기 위해 더욱 무리를 한다”면서 이로 인해 “실질적인 건강상태”는 더욱 안 좋아지고 있지만 “김정일의 사고판단 능력은 아직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한다”고 설명

● 김정일, 기억력 좋고 양손 자유로이 써(9/15, 요미우리신문)

- 작년에 발병한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왼손에 마비 증세가 남은 것으로 알려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실제로는 양손을 자유롭게 쓴다는 증언이 나옴. 북한의 건국 61주년 기념 공연차 최근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면담한 러시아 음악가 파벨 오브산니코프(Ovsiyannikov)는 15일 일본 요미우리(讀賣) 신문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기억과 말투가 확실했다. 양손을 자유로이 움직였고 담배도 피웠다”고 설명
- 김정일은 장신의 오브산니코프(약 2m)를 마주하고는 “대단히 크시군요”라며 웃는 낯으로 말을 건넸다고 함. 그리고는 무대에 선 북한



성악가들의 이름과 경력을 막힘없이 소개하더니 러시아 가곡 작곡가들의 이름까지 열거하는 등 기억력을 과시

나. 정치 관련

● 北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활(9/19, 연합)

- 북한당국이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사령부’로 일컫는 내각에 대한 일부 개편작업을 단행, 최근 북한은 1998년 ‘김정일 1기 체제’가 출범하면서 내각 과학원(현 국가과학원)에 통폐합됐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다시 독립부처로 부활시킴.
- 북한은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내온다”고 결정하고 9월 18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정령 제301호를 발표했다고 짚막하게 보도

● 北 ‘부총리 재정상’ 임명(9/18, 조선중앙통신; 9/18, 연합)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8일 ‘정령’을 통해 김완수 재정상을 해임하고 박수길을 부총리 겸 재정상으로 임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북한 내각의 부총리는 본래 4명이었는데 이날 인사로 5명으로 늘어났음.
- 통신은 박수길 부총리 겸 재정상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으나, 대외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주요인물 가운데 제10기부터 올해 새로 선출된 제12기까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내리 선출된 박수길 함경북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있어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큼.
- 박수길 함북 인민위원장은 지난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북도 연사지구 혁명전적지를 현지지도 할 때와 9월초 함북 경성군과 명천군 경제시설을 시찰 때 그를 영접하는 등 올해 들어 활발한 활동을 벌임.
- 김완수 전 재정상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회의 당시 재정상에 취임되면서 최고인민회 부의장에 올랐었는데 통상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은 내각 기관장을 맡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는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임명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임.

● 김정일, 다자·양자 핵협상 하겠다(9/18, 신화통신;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8일 북한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 또는 양자 회담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힘.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평양발 기사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다이빙귀(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이 같이 말했다고 보도
- 김 위원장은 “북한은 비핵화의 목표를 계속 견지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 문제를 양자 또는 다자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그러나 김 위원장



이 '6자회담'을 적시하지 않고 '다자대화'를 언급함에 따라 북한이 미·북 대화 이후 실제로 6자회담으로 복귀할지 여부가 주목됨.

- 김 위원장은 다이 위원에게 “북·중간 전통 우호 관계는 선배들이 물려준 귀중한 전통”이라면서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층 교류와 각 분야의 협력을 통해 우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길 희망한다”고 언급
-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김 위원장이 다이 위원을 만나 후 주석의 친서를 전달받았다면서 양국 친선관계와 상호 관심사에 대해 대화했다고 보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음.
- 다이 위원장은 16일 평양에 도착해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회담하고 17일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났음.

● 조선신보, “화해협력 분위기에 찬물” 비난(9/1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9월 4일 중국 선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와 북측위간 접촉이 무산된 것은 남한 정부가 일부 참가자들의 북한주민 접촉승인 신청을 수리하지 않아 “사실상 접촉을 불허”한 때문이라며 이는 “고조되는 남북화해와 협력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주장
- 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접견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시 특사조의방문단 파견을 통해 “북남관계에 전환의 돌파구”를 열어줬고 “온 겨레는...북남관계 발전에 큰 기대와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고 언급
- 신문은 한편 10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고수 실천 해외동포대회’가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주최로 재일 동포들과 미국, 중국, 유럽, 캐나다, 독립국가연합을 비롯한 해외동포 통일조직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고 소개

● 北사회단체들, ‘올해 총공격전 승리 결속’ 결의(9/17,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 북한의 주요 사회단체들이 16일 잇따라 전원회의를 열어 ‘150일 전투’의 기세를 몰아 “올해의 총공격전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7일 보도
- 방송은 ‘결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조선신보가 지난 11일 “(북한에선) 150일 전투가 만풍년을 자랑하듯 여러 단위들에서 연일 앞찬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그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없이 100일 전투에 이어 나간다고 한다”고 전한 것으로 미뤄 ‘100일 전투’를 결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음.
- 조선직업총동맹은 16일 평안남도 천리마군에서 제63차 전원회의를 갖고 “강성대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제끼기 위한 150일 전투에서 발휘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올해의 총공격전을 승리적으로 결



속하기 위한 투쟁에서 직맹조직들의 전투력을 남김없이 발휘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했고 여성 조직인 조선민주여성동맹도 같은 날 남포시에서 제55차 전원회의를 열어 같은 문제를 토의한 뒤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방송은 전언

- 노동신문은 17일 ‘장군님따라 승리에서 더 큰 승리로’란 기사에서 “격동적인 낮과 밤들을 승리자가 돼 뒤돌아보는 역사의 시각이 왔다”며 “참으로 변이 나는 150일, 일이 터지는 150일, 희한하고 영광 넘친 150일이었다”고 150일 전투가 종료됐음을 시사하고 “강성대국 대문으로 단숨에 날아오를 새로운 발판, 든든한 도약대”를 마련했다고 자평, 그러나 신문은 150일 전투의 성과나 실적을 구체적인 수치로는 제시하지 않음.
- 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올해는 정말 모든 일이 다 잘 되어가고 있다”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놀래우고 우리 인민들을 무한히 고무하는 격동적인 사변들”이라고 말했다고 전언

다. 경제 관련

● 北 최대의 평성시장 폐쇄(9/19, 월스트리트저널)

- 북한이 최대의 비공인 시장인 평성시장을 지난 6월 폐쇄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 인용해 19일 보도
- 신문은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중국에서의 사업을 위해 북한을 떠난 사람으로부터 이번 주에 이를 확인했다면서 평성시장 폐쇄는 시장 활동의 확산을 늦추려는 북한 당국의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 신문은 북한 당국이 시장 단속을 2005년부터 시작해 2008년 더 강화했다면서 평성시장에서는 3만개의 가게가 장사를 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음식과 의류, 중국산 상품들이 거래됐다고 소개
- 신문은 북한에서 개인들이 음식과 상품을 거래하는 비공인 시장들은 당국에 의해 용인돼 오다 2005년부터 단속이 시작됐지만, 당시 교역업자나 탈북자들이 대부분의 마을과 시에서 상당수의 시장이 열리는 것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는 등 당국의 시도는 실패했다고 전언, 신문은 6월 이후 평성에 2개의 작은 시장이 형성됐지만 많은 상인들은 집에서 물건을 거래하고 있다고 소개

● 노동신문, 강성대국 건설대전 속도전 이어가야(9/16, 노동신문; 조선신보)

- 노동신문은 16일 ‘장군님 따르면 승리가 온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정론’에서 종료된 돌격대식 증산운동인 ‘150일전투(4.20-9.16)’는 2012년 강성대국 대문을 열기 위한 “건설대전의 시범전투”였다고 “보람찬 100여일이 우리 앞에 있다”고 말해 연말까지 ‘100일 전투’를 개시할 것을 시사
- 신문은 2012년 목표 달성을 위해선 “10년, 20년에 할 일을 1년에 해



제끼며 내달려야 한다”며 “혁명은 한 전투로만 끝나지 않는다”거나 “최후에 승리할 때까지 계속공격 앞으로!”라고 언급

- 조선신보는 김 위원장이 “150일로 갑시다”라는 말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할 때도 “150일로 갑시다”라고 말했다고 김 위원장의 구호를 소개

● 김정일, 추수 총동원령(9/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모든 힘을 집중하여 올해 농사 결속을 잘하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올해 알곡 생산의 성과 여부는 한해 농사를 결속하는(끝내는) 가을걷이와 낱알털기 전투를 어떻게 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며 “전당, 전국, 전민이 가을걷이 전투에 총동원되어야 한다”고 강조
- 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가을걷이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지시했다고 설명, 신문은 “강성대국의 대문은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데서부터 열어야 한다”며 모든 주민이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가을걷이와 낱알털기를 제철에 와딱딱 해 제 낱으로써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기상을 높이 펼쳐나가야 한다”고 촉구

● 김정일 ‘평양을 더욱 웅장화려하게’(9/15, 조선중앙방송; 9월호, 조국)

- 조선중앙방송은 최근 수년간 대대적인 평양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1년 8월28일 발표한 ‘평양시를 현대적인 도시로 보수 개건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담화’에 따른 것이라고 소개
- 북한 내각 수도건설부의 김경모 국장은 이날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당시 김 위원장이 “평양시의 면모를 일신시키자면 건물과 시설물들을 보수 개건하는 사업에 힘을 넣고 봉사망들을 꾸리는 사업을 잘 하며 건물 장식도 품을 들여 손색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
- 김 위원장은 또 건물과 시설물의 보수를 위한 외장재 문제, 도로명 개칭 등의 대책도 내놓았으며, 평양시를 “더욱 웅장화려하게” 꾸리려는 김 위원장의 구상에 따라 “지금 평양시에서는 타일붙이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김 국장은 설명
- 월간 ‘조국’ 9월호는 ‘평양 리모델링’과 관련, 북한 당국이 “2012년을 목표로 여러 개의 기본 거리들을 새로 형성”하고 “10만 세대의 살림집들을 건설”할 것이라고 보도

● 北, 전국 도시·마을 새단장(9/14, 조선신보)

- 북한이 ‘강성대국’ 달성의 해로 정한 오는 2012년을 목표로 우선 평양의 리모델링에 주력하고 그 “다음에는 몇해 안으로 전국의 도시와 마을이 모두 옷을 갈아입게 될 것”이라고 조선신보가 14일 북한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



- 북한에서 “온 나라의 새 단장”에 핵심적 역할을 할 곳이 최근 1단계 공사가 끝나 타일 등 건자재 생산에 본격 나선 대동강타일공장(평남 천리마군), 신문은 이 공장이 현 생산수준으로도 “3년이면 평양의 새 단장이 가능”하고 2012년 2단계 공사가 끝나면 북한 전역의 다른 도시와 마을의 개진, 현대화에 필요한 건재를 생산할 이 공장은 장차 “마감건재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이탈리아 수준의 고급 건재를 생산, “주변 나라들 뿐 아니라 세계적인 판도에서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
 - 이 공장은 또 타일의 원료인 투희석은 함경남도 길주군 룡담리, 곶령석은 량강도 은흥군 령하구, 규석은 평안북도 녕변군 옥향리에서 나오는 것을 사용하는 등 “원료와 연료를 국내의 원천에 의거하는 생산체계”를 갖추 “대외경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신문은 강조
- **남포시, 대동강을 식수원으로 이용(9/14, 조선신보)**
 - 북한 서해안의 항구도시인 평안남도 남포시가 대동강 물을 식수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5-6년 전부터 추진해온 도시 상수도망의 전면보수 공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조선신보가 14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남포시는 그동안 시내 용강군에 있는 태성호를 식수원으로 이용했으나 “최근 태성호의 물을 이용하는 지역, 단위들이 늘어나면서 남포시의 음료수로 이용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어 식수원 공급체계 개선 계획을 세웠음.
 - 신문은 “시내에서 제일 높은 지대에 수원지를 설치하고 5대의 양수기로 대동강의 물을 퍼올린 다음 정화소독 단계를 거쳐 자연압력으로 시 안의 모든 주민 세대들에 24시간 음료수를 공급”한다고 설명
 - **北 평양국제상품전람회 21-24일 개최(9/1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대 규모의 무역박람회 격인 제5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가 21일부터 24일까지 평양의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
 - 전람회에는 북한과 중국,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프랑스, 핀란드, 폴란드, 홍콩, 대만 등의 기업들이 참가할 예정, 행사에는 공작기계, 전기 및 전자 설비, 운전기재(운수기재), 석유화학제품, 의약품, 일용품, 식료품 등이 출품
 - **北 김정은 주도 경제재건책 연장(9/14, 마이니치 신문)**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경제재건 캠페인인 ‘150일 전투’에 이어 ‘100일 전투’를 시작한다고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 베이징 발로 14일 보도, 마이니치 신문은 ‘북한 정세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생산성 제고를 위해 이달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일 전투’를 벌인다고 보도

- 북한은 150일 전투 과정에서 석탄의 채탄 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북한이 생산하는 맥주의 상업광고방송, 상점의 서비스 향상 등 경제활동에 변화가 포착되고 있음.

라. 군사 관련

● 北경비정, 지난주 수차례 NLL 침범(9/19, 연합뉴스)

- 북한 경비정이 지난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수차례 침범했던 것으로 알려짐. 군의 한 소식통은 18일 “북한 경비정이 지난주 NLL 1마일가량 여러 번 침범한 적이 있었다”고 밝히고 “이는 NLL 부근에서 조업하는 북한 어선들이 NLL을 넘어 내려오는 것을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언급, 이 소식통은 이어 “이번 주는 북측 경비정이 NLL을 넘지 않고 북한 해역에서 어선들의 동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언
- 북한 어선들은 이달 초부터 연평도 NLL 해상에서 100~300여 척씩 선단을 이뤄 조업하고 있으며 이 중 수십 척이 NLL을 반복해 넘나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소식통은 “(우리)해군 고속정이 NLL을 월선하는 북한 어선을 향해 경고방송을 하면서 퇴치하고 있다”고 소개

마. 사회·문화 관련

● 평양과기大 준공식 개최(9/16, 조선중앙통신)

- 평양과학기술대학의 1단계 건물 준공식이 16일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통신은 북측에서 전극만 교육성 부상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김진경 평양과학기술대학 설립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성원들”이 참석했다고 보도하고 김진경 총장을 이 대학 ‘공동운영총장’으로 임명하는 임명장이 김 총장에게 전달됐다고 소개
- 평양시 락랑구역에 자리잡은 이 대학은 남측의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과 북한 교육성간 설립 합의에 따라 지난 2002년 중반 착공식을 가진 뒤 2003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 100만㎡의 대지 위에 본부동, 학사동, 종합생활관, 기숙사, R&D센터 등 총 17개동 연건평 약 8만㎡의 건물들을 완공

● 북한에 7월8일 출생자 없는 이유는(9/16, 중국의 인터넷 뉴스 사이트 환구망(環球網))

- 최근 평양을 다녀온 중국 관광객이, 그 이유가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관련이 있음을 알아냈다고 중국의 인터넷 뉴스 사이트 환구망(環球網)이 16일 보도
- 이 관광객은 북한 안내원의 말을 인용 “7월 8일은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날로, 북한 사람들이 가장 비통해 하는 날”이라며 “이런 연유로



김 주석이 사망하자 7월 8일 출생자들이 모두 7월 18일이나 7월 28일로 출생일을 바꿨다”고 소개, 북한 안내원은 “위대한 김 주석께서 사망한 날을 생일로 삼아 즐거워할 수 없다며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라며 강제적으로 이뤄진 일이 아님을 애써 강조

- 1994년 김 주석이 사망한 뒤 7월 8일생인 북한의 주민들이 애도의 뜻으로 스스로 생일을 바꾸고 그 이듬해부터는 7월 8일 태어난 자녀는 아예 출생일을 바꿔 호적에 올림.

● 김일성대, ‘언어학종합전자사전’ 개발(9/3, 교육신문)

- 김일성종합대학이 올해 ‘150일 전투’ 기간에 올림말(등재 어휘)이 15만 개에 달하는 ‘언어학종합전자사전’을 개발했다고 북한의 교육신문이 9월 3일보도
- 신문에 따르면 김일성대 문학대학 언어학강좌 교수와 학생들은 “150일 전투가 시작되어 얼마 안되는 짧은 기간에” 이 전자사전을 개발했다고 소개, 전자사전에는 ‘언어학 전문용어 사전’, ‘비슷한 말 사전’, ‘유래 사전’, ‘성구속담 사전’, ‘연관어 사전’, ‘언어학 영조-조영 사전’, ‘방언 사전’, ‘빈도수 사전’ 등이 들어 있다고 신문은 설명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 관련

● 美, 김정일 발언 6자회담 연결돼야(9/21, 조선일보)

- 미 국무부의 커트 캠벨(Campbell) 동아태 차관보는 19일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6자회담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 일본 방문을 마치고 이날 워싱턴에 도착한 캠벨 차관보는 북한이 6자회담 틀로 복귀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다시 나아갈 준비가 돼 있는지 지켜볼 준비가 돼 있다는 말로 6자회담 복귀를 촉구
- 이에 앞서 캠벨 차관보는 김 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중국의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다자 대화 의사도 있다”고 밝히자, 이를 6자회담 복귀의 긍정적 신호로 분석했었음. 그는 “북한이 우리가 요청해 왔던 조건들을 받아들일겠다는 뜻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 北박길연, 유엔총회 향발(9/19, 조선중앙통신)

- 박길연 외무성 부상이 유엔총회 제64차 회의(9.20-25)에 참가하기 위해 18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 통신은 박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의 향발 소식을 한 줄로만 짧게 보도



● 북미대화, 유엔총회 뒤 결정(9/18, 연합)

-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미 양자대화 여부와 관련, “역내 파트너들과 협의를 계속한 뒤 매우 가까운 장래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 크롤리 차관보는 “유엔 총회기간에 대통령과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에 관심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개별적인 대화를 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면서 “유엔 총회를 끝내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힘.
- 그는 “우리는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양자 대화를 가질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혀 왔다”면서 “아직 그렇게 하겠다는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언, 크롤리 차관보는 이어 일본의 새 정부가 북미 직접대화에 반대할 수 있다는 지적에 “우리는 대북 전략과 관련해 정말 폭넓은 의견일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

● 美, 6자 밖에서는 北과 어떤 실질대화도 안해(9/14, 연합)

- 미국은 14일 6자회담 틀 밖에서 이뤄지는 북한과의 어떤 대화에서도 실질적인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조만간 이뤄질 북미 양자대화의 목적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설득에 국한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힘.
-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6자회담 맥락 밖에서는 북한과 어떤 실질적 양자대화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줄곧 밝혀왔다”면서 “우리의 목적은 북한을 6자회담과 그 맥락으로 복귀시키는데 있다”고 밝힘.

나. 북·미 관계

● 美여행사, 호화판 북한관광상품 출시 계획(9/18, 미국의소리방송)

- 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호화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의 ‘리모트 렌즈’ 여행사가 최초의 호화 북한관광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 이를 위해 이 여행사의 캐서린 힐드 대표는 2주전 북한을 직접 방문, 평양과 비무장지대, 묘향산 등을 둘러봤다며 “북한은 여행하기에 매우 흥미있는 나라였으며 사람들은 매우 친절했다”고 VOA와 인터뷰에서 밝힘.
- 그는 이 관광상품 계획이 초기단계여서 구체적인 일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관광객들이 개인 제트기로 중국 베이징까지 가서 최고급 호텔에서 하루 묵은 뒤 다시 개인 제트기나 상업용 항공기 편으로 평양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소개, 이 회사는 이러한 맞춤형 북한관광 경비로 1인당 하루 최소 1천달러를 잡고 있다고 밝힘. 힐드 대표는 이 관광상품 준비를 위해 북한 관계자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북한 당국의 승인 여부는 밝히지 않음.



- **北, 美에 평양과기大 기자재 허용 요청(9/18, 미국의소리방송)**
 - 북한 당국이 미국 상무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평양과학기술대학에 대한 컴퓨터 등 첨단 교육기자재의 반출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김진경 평양과기대 총장이 밝힘
 - 북한 당국은 미 상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특히 평양과기대가 반입하려는 기자재에 대한 미국측의 검색도 받아들일 것이며, “그들(미국)이 원하면 언제든 (북한에서) 되가져 나갈 수 있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안다고 김 총장은 부연
 - 김 총장은 평양과기대는 “국제대학으로 대학 특구처럼 돼 있다”며 “마치 외교 공관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컴퓨터 등을 공관에 가지고 들어가듯 우리도 실습 기자재 등을 북측에 기증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모든 법적 소유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강조
 - 미국 국무부는 이 학교 준공식과 관련해 지난 7월 김 총장에게 보낸 국무부 관계자 명의의 축하 메시지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 미 정부가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 **北, 美에 전방위 외교 공세(9/16, 연합)**
 - 북한의 대미 외교공세가 오바마 행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의회와 민간 등 전방위로 확대, 북한은 8월 초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초청해 이르면 9월 말이나 10월 초에도 북미 정부간 양자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임. 이런 가운데 북한은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에게도 적절한 시점에 방북해 달라는 공식 초청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 당국은 뿐만 아니라 미국의 민간단체와 주요 인사들의 방북도 대거 받아들이는 등 민간분야와 접촉 및 교류도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6일 소식통을 인용, “최근 북한이 단체인지 개인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25건에 달하는 미국인의 방북을 허용했으며 이에 대한 비자 발급도 승인했다”고 전언

다. 북·중 관계

- **김영춘, 中장성 면담(9/19, 평양방송)**
 -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인 김영춘 차수가 19일 첸리화(錢利華) 중국 국방부 외사판공실 주임을 만났다고 평양방송이 보도
 - 방송은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이날 “국방부 외사판공실 주임인 첸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인민해방군 외사일꾼 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했다”고 전했으나 대화 내용은 소개하지 않음. 이 자리에는 북한군 장성·장교들과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 대사와 육군 무관이 배석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 지난 17일 방북한 첸 주임 등 대표단은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고 6.25기념관인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판문점, 북·중 친선탑인 ‘우의탑’ 등을 참관하고 집단체조 ‘아리랑’도 관람
 - 첸 주임은 미국, 한국, 일본 등과도 군사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짐.
- **김정일, 中후진타오 친서 접수(9/18,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8일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특사로 방북한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나 후 주석의 친서를 전달받았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김 위원장은 또 다이 국무위원과 “두 나라 친선관계를 변함없이 발전시킬 데 대해서와 서로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했다고 방송은 소개, 이 면담에는 북한의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배석
 - 다이 국무위원은 이날 면담 후 비행기로 귀국했다고 18일 오후 4시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다이 국무위원은 16일 평양에 도착,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회담하고 17일엔 북중 ‘혈맹’ 관계를 상징하는 우의탑에 헌화하고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는 한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
 - **北, 중국요리 배우자, 中에 100명 파견(9/18,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
 - 북·중 우의(友誼)의 해를 맞아 북한이 최근 중국에 요리사들을 대거 파견, 중국 요리 배우기에 나섰다. 40명의 북한 요리사가 8월 28일 광저우(廣州) 신동팡(新東方)요리학교에 도착, 광둥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중국의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가 18일 보도, 이들은 북한의 1, 2급 호텔에서 근무하는 요리사들로 1년간 체계적으로 광둥요리를 배우게 됨.
 - 이들 외에도 각각 30명으로 구성된 북한 요리사들이 베이징과 양저우(揚州)로 파견돼 중국 요리를 익히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
 - 신동팡학교 관계자는 “최근 중국 관광객들이 늘면서 중국 음식 수요가 늘었으나 북한에는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요리사가 많지 않다”며 “북한 국가요리협회의 중국 요리사 양성 계획에 따라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
 - **다이빙궈, 김영남과 北·中관계 논의(9/18, 신화통신)**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자격으로 북한을 방문중인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17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나 양국 관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8일 보도
 - 김영남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



임위원장에 대해 인사를 전해 달라고 말하면서 중국의 건국 60주년을 축하했다고 통신은 보도, 그는 “양국의 우호 관계 발전에 대한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의 입장은 매우 확고하다”면서 “북한은 중국과 함께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 회담이 끝난 뒤 다이 위원은 김영남 위원장과 함께 평양대극장에서 가극 ‘홍루몽’을 관람

● **中다이빙귀 방북, 北최태복 방중(9/16, 자유아시아방송)**

- 중국의 다이빙귀(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9월 14일 북한을 방문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16일 보도
- 다이빙귀 국무위원은 북한을 방문한 이후 몽골과 태국을 차례로 순방할 예정이라고 RFA는 보도, RFA는 또 같은 소식통을 인용해 15일엔 북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중국을 방문했다며 그의 방중은 북한의 제2차 핵실험으로 중국과 북한간 의회 교류가 취소된 이후 관계를 복구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
- 그러나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은 최태복 의장이 15일 방북한 라오스인민혁명당 대표단을 위해 만수대의사당에서 연회를 마련하고 연설했다고 16일 오전에 일제히 보도한 것으로 미뤄, 최 의장은 15일까지는 북한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

● **北-中, 의학과학 협조계획서 조인(9/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보건성과 중국 위생부가 14일 베이징에서 올해부터 2011년까지 이뤄질 양국 간 ‘보건 및 의학과학 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집행계획서’를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 조인식에는 북측에서 최창식 보건상과 주중 북한대사가, 중국 측에서 장모 위생부 부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가했다고 통신은 전언

라. 북·일 관계

● **北, 日 하토야마 내각 출범 보도(9/18, 조선중앙통신)**

- 일본에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가 총리로 선출돼 16일 하토야마 내각이 정식 발족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뒤늦게 보도, 통신은 하토야마 총리가 16일 특별국회에서 진행된 총리 선거에서 다수의 지지표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전하고, “이보다 앞서 야소 내각이 총사직하였다”고 밝힘. 그러나 통신은 하토야마 정권에 대해 어떠한 논평도 하지 않음.

● **北방송, 日 새 정부에 ‘先 과거청산’ 요구(9/17,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17일 ‘과거 청산이 없는 관계 개선이란 있을 수 없다’는 제목의 방송물에서 북한과 일본의 ‘평양선언’ 서명 7주년을 맞아 “과



거 청산이 없는 조(북)·일 사이의 신뢰와 관계 개선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새로 출범한 일본의 하토야마 정권에 철저한 과거 청산과 배상을 요구

마. 기타외교 관계

● 당대표단, 카자흐스탄 향발(9/19, 조선중앙방송)

- 김태중 국제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대표단이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리는 아시아정당들의 국제회의의 제5차 총회에 참가하기 위해 19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대표단은 베트남과 라오스도 방문한다고 방송은 소개

● 北노동당-라오스인혁당 회담 개최(9/1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선노동당과 라오스 인민혁명당이 16일 평양에서 회담을 가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이날 회담에는 북측에서 최태복 당 중앙위 비서가, 라오스 측에서는 방북 중인 아상 라오리 인민혁명당 정치국 위원이 참석, 북한은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방북한 라오스 인민혁명당 대표단을 위해 연회를 개최

● 北, 쿠바 서열 3위 사망 애도표시(9/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노동당 국제부는 16일 쿠바 혁명 1세대의 대표적 인물로 꼽히는 후안 알메이다 보스케 국가평의회 부의장의 사망에 애도를 표시하면서 평양 주재 쿠바 대사관에 화환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
- 북한 인민무력부와 외무성, 무역성,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북한-쿠바 단결위원회 등도 주북 쿠바 대사관에 조화를 보냈음.
- 대사관에서 열린 헌화행사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리룡남 무역상, 김용진 교육상, 문재철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 대리, 김태중 당 국제부 부부장,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형준 외무성 부상 등이 참석

3. 대남정세

● 北, 김의장 ‘임진강사태 서한’ 이례적 접수(9/17, 연합뉴스)

- 북한이 17일 임진강 수해사태와 관련한 김형오 국회의장의 서한을 이례적으로 접수했다고 국회 대변인실이 밝힘. 대변인실은 “임진강 사태와 관련해 김 의장이 최근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최태복 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북한 당국이 오늘 오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공식 접수했다”고 설명
- 김 의장은 앞서 지난 15일 북측에 보낸 서한에서 임진강 수해사건에



대한 북한 측의 진상 공개, 진정성 있는 사과, 재발방지를 위한 당국 간 대화, 대한민국 국회 차원의 북한 현장방문 등을 요구, 북한이 우리 국회의장의 서한을 접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북한은 그간 한국에서 보낸 서한 중 유감이나 항의의 내용을 담은 서한은 대부분 접수 자체를 거부해 왔음.

● **남북, 이산상봉 대상자 명단 교환(9/17, 연합)**

- 남북은 17일 추석 이산가족 상봉행사 참가가 확정된 대상자 각 100명의 명단을 교환, 남북 적십자사는 이날 오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리는 상봉 행사에 참가할 최종 명단을 주고 받았음.
- 이번 상봉 행사는 26~28일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 100명이 금강산에 가서 북측 가족 약 200명과 만나고 이어 29일부터 10월1일까지 북측 이산가족 방문단 100명이 역시 금강산에서 남측 가족 약 450명과 만나는 방식으로 치러짐.

● **정부, 추석 이산상봉에 13억여원 지원(9/16, 연합)**

- 정부는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열리는 남북 이산가족상봉에 13억 1천593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기로 했음.
- 정부는 최근 제22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개최,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 이산가족상봉 행사에 드는 경비(행사준비비, 국내집결지 숙식비, 이동경비, 체재비, 상봉행사비, 가족공동식사비 등) 지원을 위해 13억1천593만원 이내의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통일부가 16일 밝혔.
- 정부는 또 이산가족 상봉 때 방북하는 상봉 대상자에게 경비로 1인당 10만원씩 받던 것을 면제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던 상봉 준비비는 변함없이 제공하기로 했음.

● **경기도의료원, 개성공단 근로자 건강 양호(9/16, 연합)**

- 경기도립의료원 산하 파주병원은 9월 8~10일 개성공단에서 남측 근로자 1천29명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활동을 벌인 결과, 모두 건강이 양호했다고 16일 밝혔.
- 김현승 파주병원장을 단장으로 일반외과 전문의,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8명으로 구성된 무료진료단은 이번 진료활동기간에 모두 202건의 일반 진료와 5건의 말라리아 검사를 했음. 도립의료원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의료단을 개성공단에 파견, 남측 근로자는 물론 북측 근로자와 주민 등 모두 38만명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
- 도립의료원은 개성공단에 분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언



● 北, 오늘부터 개성기업 실태점검(9/16, 연합)

- 북한이 16일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방문, 실태를 점검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개성공단 감독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5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16일부터 입주기업들을 방문, 실태를 조사하고 민원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통보
- 북측은 앞서 2006년에도 전 입주기업을 돌며 실태점검을 한 적이 있다고 통일부는 전언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 6자회담 복귀의지 지켜볼 것” <캠벨>(9/20)

- 미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6자회담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19일 밝혔다.
- 일본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캠벨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인근 공항에서 한국, 일본, 중국과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진정 6자회담 틀로 복귀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행해 다시 나아갈 준비가 돼 있는지 지켜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 앞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다이빙귀(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다자·양자간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8일 전했다.
- 캠벨 차관보는 김 위원장의 발언 보도와 관련, 기자들에게 6자회담 복귀의 긍정적 신호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음. 캠벨 차관보의 일본 방문은 지난주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이뤄졌음.

● 한·미, ‘북핵’ 연쇄 회동(9/20)

- 미국과 북한간 양자대화를 앞두고 한·미가 미국서 연쇄 회동, 북핵 문제를 사전 조율함.
- 외교통상부는 20일 유명환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6자회담 재개방안을 포함한 북핵 현안과 양자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해 뉴욕에서 열리는 제64차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함.
- 또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3~26일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등 미국측 인사들과 북핵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출국했음.
- 위 본부장은 출국에 앞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북핵과 관련한 상황에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워싱턴 D.C.에서 그에 대한 추가적인 조율을 하게 된다”며 “북·미 양자대화(시기)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전에 필요한 의견 교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대화와 제재의) ‘투트랙 어프로치’를 통합적으로 운용해서



(북한을) 대화 과정으로 어떻게 복귀시키느냐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으면서 생산적인 대화를 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위 본부장은 방미 기간 북핵문제를 총괄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해 국무부와 국방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미·북 양자 대화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해 6자회담 재개 방안 등 주요 현안을 협의할 예정.
- 한편 유 장관은 25일까지 뉴욕에 체류하면서 이라크와 이집트, 스페인, 파나마 등 주요국 외교장관들과도 잇따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현안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증진방안 등에 대해 협의함. 유 장관은 또 ‘밀레니엄 프로미스’(Millennium Promise) 연례 파트너 회의와 제6차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발효추진회의, 민주주의공동체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다자회의에도 참석할 계획임.

● 한·미, 23~26일 워싱턴서 북핵 협의(9/20)

-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3~26일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등 미국측 인사들과 북핵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0일 오전 출국했음. 위 본부장은 출국에 앞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북핵과 관련한 상황에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워싱턴 D.C.에서 그에 대한 추가적인 조율을 하게 된다”며 “북·미 양자대화(시기)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전에 필요한 의견 교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대화와 제재의) ‘투트랙 어프로치’를 통합적으로 운용해서 (북한을) 대화 과정으로 어떻게 복귀시키느냐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으면서 생산적인 대화를 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위 본부장은 방미 기간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해, 국무부와 국방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미·북 양자대화’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해 6자회담 재개 방안 등 주요 현안을 협의할 예정임.
- 그는 앞서 20~23일 뉴욕 방문 기간에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리는 다양한 정상외교와 외교장관회담을 보좌하며 미국과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 인사들과도 만나 북핵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교부 당국자는 “뉴욕에서 중국측과 북핵 협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위 본부장의 방미 일정은 아직 모두 조정 중이지만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의 관련 인사들은 거의 다 만나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위 본부장은 일주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친 뒤 26일(현지시각) 귀국길에 올라 27일 오후 서울에 도착함.



● 클린턴 “비확산 체제강화에 北도 포함”(9/19)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8일 미국과 유엔의 비확산체제 강화에는 북한의 이행노력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브루킹스연구소 초청연설에서 “비확산체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북한과 이란 등 다른 국가들의 이행노력을 의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확산군축 위원회를 주재하면서 국제 핵무기 비확산체제와 비확산 의무 이행요구에서 안보리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그는 “오바마 대통령은 나에게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회의에 미국 대표단을 인솔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나는 이번에 CTBT가 국제적인 비확산노력과 미국의 안보이익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 클린턴 장관은 또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 최근 6개월 사이에 가장 강력한 제재가 취해졌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단지 문서상으로가 아니라 제재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그는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이 그런 일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우리가 직면한 위협에 대한 공통의 이해기반을 찾으려는 엄청난 노력을 통해 가능했다고 덧붙였음.
- 이와 함께 클린턴 장관은 이란이 핵프로그램을 계속 포기하지 않으면 더 큰 고립과 경제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음. 그는 “이란이 계속 반발하면 더 큰 고립과 경제제재와 함께 이란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가능성도 그만큼 줄어드는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는 내달 1일로 예정된 이란과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 회담과 관련, “우리는 이란과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이란은 이러한 노력에 협력할지를 지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北 6자회담 거부시 中 지원.보장 없어”<中전문가>(9/18)

- 북한이 계속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고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더 심각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할 것이므로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중국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자칭귀(賈慶國) 부원장이 18일 주장했다.
- 자 부원장은 동북아공동체연구회가 명동 은행회관에서 ‘동북아공동체로 가는 길: 경제, 안보와 환경문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회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지원과 안전보장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 6자회담을 되살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이 궁극적으로 지역안보를 위한 다자간 안보 기구로 변형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북한을 제외하고는 6자회담 참가국



중 어느 나라도 6자회담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그는 특히 “북한의 6자회담 거부와 핵프로그램 재가동은 지역 안보에 대한 다자간 협력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어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공조하는 것이 요청된다”며 “이론상 북한 없이도 (다른 6자회담 참가국 등이) 다자 안보기구를 만들 수 있다”고 북한에 경고했음.
- 그는 그러나 “대부분의 동북아 국가들이 비핵화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데다 북한을 비핵화해야 한다는 결의가 있으며 지역안보 협력에 헌신하고 있다”며 “대체로 이런 이유로 인해 (북핵 문제를 비롯해) 동북아 평화와 안보 협력의 미래에 관해 조심스럽게 낙관할 수 있다”고 덧붙였음.

● “北비핵화 땀 ‘핵확산 방지기구’ 필요”(9/18)

- 북한 핵문제의 정치적 사안이 해결될 경우 우리나라 주도로 비핵화 작업을 수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 18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따르면 STEPI 글로벌협력센터 남북협력팀 김종선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한반도 비핵화와 상생을 위한 ISTC(국제과학기술센터)형 모델 구축’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음.
- 보고서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핵에 의한 환경 오염, 핵확산 등 여러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전략적이고 준비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음. 보고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책으로 옛 소련 붕괴 후 미국 주도로 1993년 12월 설립된 핵확산 방지 기구인 ISTC의 활동과 그 성과를 제시했음.
- ISTC는 옛 소련 무기분야 종사 과학자들의 제3세계 유출 방지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외에도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등이 참여하고 있음. ISTC의 주요 역할은 핵 과학자들의 직업 전환을 위한 연구재단으로 러시아의 발전 상황에 조응하면서 유연하게 지원 분야를 적용해왔음. ISTC는 핵관련 과학자들의 연구영역 전환을 위해 총 17개 분야에서 그동안 2천646건의 프로젝트를 지원했으며 지원된 총 금액은 8억1천만 달러에 달함.
- 보고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행될 경우 핵확산 방지를 위한 ISTC 모델에 바탕을 둔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ISTC와 같은 기구가 설립될 경우 초창기에는 주로 핵관련 과학기술자들의 연구분야 전환을 목적으로 하되, 핵확산의 위험이 줄어들고 어느 정도 기술의 시장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남북한의 상생과 공영을 위한 연구주제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음.
- 보고서는 또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인력 및 자원이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우선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원사업의 수행에 있어서도 관리의 효율성과 상생을



위한 운영시스템의 구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 柳외교 “北핵무기는 남한 겨냥한 것”(9/18)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8일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미국과의 문제일 뿐이며 과연 남한을 향해 쓰겠느냐고 하는 것은 순박한 생각”이라며 “북한의 핵무기는 남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힘. 유 장관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와 북핵문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그런 순박한 생각을 갖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이같이 말함.
- 그는 이어 “북한의 목표는 적화통일이고 그런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라며 “북핵 문제가 미국과의 문제이고 남·북한이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고 지적함. 유 장관은 또 “과거에는 남북관계가 북핵문제에 비해 우선순위를 가진 적도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재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함.
- 그는 “북한이 자꾸 북·미 양자대화에 집착하는 것은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받아 미국과 핵 군축협상을 진행하려는 것”이라며 “북한이 얘기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는 미·북 평화협정과 그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라고 강조함. 유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능력에 대해 “북한은 현재 플루토늄을 40여kg 추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현재 핵무기 하나를 만드는데 6~7kg가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핵무기를 6~8개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함.

● “北, 수년내 우라늄 핵폭탄 실험 어려워”(9/17)

- 북한이 최근 우라늄 농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고농축우라늄(HEU)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데만 최소한 3년이 더 필요해 가까운 장래에 이를 이용한 3차 핵실험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미국 하버드대 핵 전문가인 장후이 박사가 주장함. 16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그는 북한의 HEU 핵폭탄 제조 능력과 관련, “원심분리기를 수십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단계와 원심분리기를 수백개 정도 갖고 있는 시험용 실험시설 보유 단계의 중간 정도”로 추정하면서 이같이 말함.
- 장 박사는 “북한이 1년 동안 HEU 핵폭탄 1개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갖추는 데만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런 추정도 북한이 원심분리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란을 비롯한 외부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함. 이어 “북한이 핵폭탄용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하는 데만 수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 수년 안에 HEU 핵폭탄으로 핵실험에 나서지는 않을 것 같다”고 그는 덧붙였음.
- 그는 “이론상 북한이 러시아에서 수입한 고강도 알루미늄 튜브 150t



을 이용해 1년에 HEU 핵폭탄 1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2천600개 정도의 P1형 원심분리기를 만들 수” 있으나 원심분리기 제조엔 베어링을 비롯해 만들기 어려운 부품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또 “설사 원심분리기를 만들었다 해도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이 조만간 무기급 HEU를 생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그는 전망함. 그는 “우라늄 농축시설은 규모가 작아 찾아내기 매우 힘들어서 북한의 핵 폐기 검증을 매우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과 즉각 협상을 시작해 북한의 HEU 핵폭탄 개발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 <미-북대화 앞두고 북핵 외교전 ‘가열’>(9/16)

- 미국과 북한간 양자대화가 가까운 시일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북핵 관련국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음. 특히 미국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움직임이 주목됨. 우선 미국은 이달말께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을 동아시아에 파견할 것으로 알려짐.
-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현재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남다름. 그는 최근 오바마 행정부가 ‘6자회담 촉진’을 명분으로 북한의 양자대화 요구를 수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짐.
- 미국 정부가 북한과 양자대화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제시했던 ‘비가역적 비핵화’나 ‘6자회담 복귀선언’ 등 조건의 유효성을 놓고 핵심 관계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으나 이를 정리하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재가를 얻어낸 인물이 바로 그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임.
-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북한과의 양자대화 문제와 6자회담 재개 방안,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임. 특히 양자대화에서 미국이 꺼내들 카드에 대한 설명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관련, 클린턴 국무장관은 15일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미 양자대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북·미 양자대화가 열릴 경우 ‘상응하는 대가’와 ‘인센티브’를 북측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중국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림. 북·미가 갈등에서 대화로 국면을 전환시키고 있는 듯한 상황에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지렛대 역할’을 하기 위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양상임. 특히 전임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외교’를 비판하는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과의 협의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국이 보여줄 중재행보가 주목됨.
- 외교소식통의 전언이 엇갈리고 있지만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의 다이빙귀(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14일 방북했다고 전함. 또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도 내달초 방북, 평양에서 열리는



‘조·중 친선의 해’ 행사 폐막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짐. 다이빙귀 국무위원의 방북은 미국이 북한과 양자대화를 결정한 상황에서 북한을 상대로 대화 재개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풀이됨.

- 한 외교소식통은 16일 “다이빙귀 위원의 위상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친분 등을 감안할 때 그가 방북하는 것은 북한의 6자회담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거나 북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유도하는 임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보여진다”고 말함. RFA는 이와 함께 북한의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15일 중국에 들어갔다고 전하고 있음. 최근 북·중 관계가 북한의 5월 2차 핵실험 강행 당시의 갈등에서 벗어나 우호국면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됨.
- 이번 주말에는 외교통상부의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미국을 방문,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북·미 양자대화과 6자회담 재개방안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임. 외교소식통은 “북한과 미국간 양자대화가 성사될 경우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새로운 국면의 돌입을 상징하게 된다”면서 “관련국들의 국익확보를 위한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함. 특히 오는 23일부터 핵심 관련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유엔총회가 열릴 예정이고 10월 초에는 중국의 국경절 행사와 북·중 수교 기념행사가 이어지며 정권교체로 면모를 일신한 일본 정부도 과감한 외교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화려하고 복잡한 각국의 북핵 외교 행보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中, 北-美 양자대화에 촉각>(9/15)

- 미국이 북한과 양자대화에 나설 용의를 표명하면서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대응 전략이 주목되고 있음.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가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 양자 대화 방침을 천명하는데 대해 중국은 15일 오전 현재 아무런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북-미 양자대화가 6자회담 틀안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기존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관측됨.
-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 이 회담을 성사시키고 고비때 마다 대북문제 해결사 능력을 보인 중국의 이런 방침은 곳곳에서 감지됨.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 일행이 최근 북-미 양자회담 발표에 앞서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협의를 거쳐 동의를 구했을때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은 “북한을 6자회담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일단 걸으론 찬성했다는 후문임.
- 중국 학자들의 견해도 마찬가지로임.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왕판(王帆) 소장은 14일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양자대화 수용 발표를 유연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 북-미 현안은 6자회담 틀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함.
- 중국국제문제연구소 북한문제전문가인 양시위(楊希雨)는 중국은 항상 북-미 양자대화를 지지해왔다고 말하고 북-미 양자대화가 진전되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란 일각의 전망을 일축함.
- 중국현대국제문제연구소내 미국연구소 위안펑(袁鵬) 소장은 북-미 관계 정상화가 한반도핵 문제 해결에 결정적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북-미 대화의 진전내용은 나머지 4개 당사국에 즉각 통보돼야 한다고 역설함.
- 중국이 이같이 6자회담 지속에 역점을 두는 것은 북-미 양자회담이 진전되면 6자회담 필요성이 없어지고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축소될 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임.
- 류장용(劉江永) 청화대 국제문제연구소 교수는 지난 8월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이 방북했을 당시 “6자회담은 북·미 직접협상의 창구 역할을 해왔는데 북-미대화가 추진되면 6자회담의 의미가 퇴색돼 조속한 재개 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내다봄.
- 중국의 북한문제 전문가인 장롄구이(張璉圭<王+鬼>)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지난달 24일 환구시보(環球時報)에 기고한 글에서 “북미관계와 6자회담은 한쪽이 잘되면 한쪽이 못 되는 관계”라면서 “만약 북한이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게 되면 6자회담은 재개될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함.
- 중국이 그동안 불투명했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북을 확정하고 이에 앞서 다이빙귀(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평양에 파견하려는 계획에는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 내고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다는 외교전략이 담겨있다고 베이징의 외교소식통들이 분석함.
- 북-미 양자대화의 개최일자와 장소, 그리고 의제등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이자 중국은 이에 앞서 중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는 ‘증거’를 대내외에 과시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임.

● 유엔 核회의 초안, 4개 대북제재 재확인(9/15)

- 오는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특별 핵(核)정상회의에서 채택될 결의안 초안에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취해진 4개의 안보리 대북제재를 ‘재확인(reaffirm)’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 14일 정치전문매체인 폴리τικο에 따르면 안보리 순회의장국인 미국이 핵정상회의에 앞서 상임이사국 등에 회람한 결의안 초안에는 대북 결의 825호(1993년), 1695호(2006년),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13번째 항목에 들어감.
- 결의 825호는 지난 1993년 북한의 NPT(핵무기확산금지조약) 탈퇴와 관련해 북한의 재고를 만장일치로 촉구했고, 결의 1695호는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 일본 주도로 북한의 미사



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동의 중단을 촉구한 것임.

- 또 결의 1718호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 채택된 것으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및 탄도 미사일 발사 금지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을 계기로 지난 6월 채택된 1874호에는 1718호 당시 미온적이었던 중국과 러시아가 비교적 협조적으로 참여했으며, 북한 화물검색과 금융제재를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꼽힘. 핵정상회의 결의안 초안은 그러나 4가지 결의안을 나열하면서 ‘북한’이라는 국가를 특정하지는 않았음. 결의안은 내년에 개최될 핵안보와 관련한 세계정상회의를 지지한다는 입장도 담고 있음.

● 라이스대사 “유엔, 대북제재 모니터팀 구성”(9/15)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와 관련해 이를 모니터하기 위한 팀을 선정했다고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14일 밝힘.
- 라이스 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북제재 모니터팀은 수주내로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감독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함. 유엔 대북제재팀의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라이스 대사는 전함.
- 라이스 대사는 “현재까지 취해진 각종 탐지활동과 글로벌 차원의 협력은 향후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억제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대북제재 모니터팀은 무기를 싣고 이란으로 향하던 북한 선박을 아랍에미리트(UAE)가 억류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함.

나. 미·북 관계

● 오바마 “김정일 꽤 건강..통치력 건재”(9/20)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상당히 건강한 상태며, 북한에 대한 통치권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음.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CNN방송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지난달 방북 결과를 토대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에 대해 이 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 사람들과 잦은 교류가 없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건강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클린턴 전 대통령은 그(김 위원장)를 가까이에서 보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고 말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더 이상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다”면서 “그러나 한 때 사람들은 김 위원장이 (권좌에서) 멀어지는게 아니냐는 생각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지금) 김 위원장은 다시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고 말했음.
-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지난달 초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국적 여기자



2명의 석방을 위해 평양을 방문, 김 위원장과 면담했으며 귀국 후 김 위원장 건강상태 등에 관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음.

● 브라운백, 北테러지원국 재지정법안 재추진(9/19)

- 미국 공화당의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법안을 의회에 재제출할 방침임을 밝혔다고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인터넷판이 18일 보도.
- 브라운백 의원은 이 잡지와와의 인터뷰에서 “미 행정부는 법률적으로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를 원한다”고 밝혔음. 그는 “이 법안은 그들(정부측)이 법률가들의 뒤로 숨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음.
- 미 국무부는 미국 내 일각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에 북한이 지속적으로 국제테러활동에 대한 지원을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난색을 표한 바 있음.
- 앞서 브라운백 의원은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실험 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부활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지난 7월 이뤄진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음.

● “北 본질적 양보없어” <美전문가>(9/19)

- 데니 로이 미국 하와이대 동서문화연구소(동서센터) 선임연구원은 18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핵 다자회담 참여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우호 모드로 전환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양보는 없다고 분석했음.
- 로이 선임연구원은 이같은 분석을 근거로 북미 관계에 “극적인 돌파구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음. 그는 “북한이 수주전의 적대 모드에서 우호 모드로 바뀌었다는 또 다른 신호를 보낸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본질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양보는 여전히 없다”고 평가했음.
- 북한의 태도변화 없이도 양자대화는 진행되게 되어 있었고 미국은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양자대화라는 새로운 틀을 이미 만들어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동의는 더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기 힘들다는 것임.
- 로이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동의만으로는 오바마 미 행정부가 북한에 추가 양보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음. 그는 또 “미국은 북한이 다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기 전까지는 제재를 철회하지 못할 것이고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천명해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일부 제재만 풀어야 한다는 압력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음.



● 美 ‘신중’..北진의파악 주력(9/19)

- 미국은 18일 핵문제를 양자 또는 다자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언급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음. 김 위원장의 정확한 발언 내용이 전해지지 않은데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언급인지도 아직 모른다는 판단 때문.
- 미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중국측으로부터 다이빙귀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방북 결과를 전해 듣지 못했다”면서 “디브리핑을 받은 뒤에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켈리 대변인은 다만 “우리는 6자회담 맥락 및 6자회담 재개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북한과 양자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6자회담 재개에 도움이 된다면 북미 양자대화를 갖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음.
-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중국으로부터 자세한 방북 결과를 전해들은 뒤에나 북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특별한 전제 조건은 없는 것인지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의 향후 대응도 이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음.
- 앞서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미 양자대화 여부와 관련, “역내 파트너들과 협의를 한 뒤 매우 가까운 장래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면서 “유엔 총회를 끝내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음.
- 워싱턴 소식통은 “어떤 형식으로 바뀌든 기본 틀은 다자간에 이미 합의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합의 내용”이라면서 “미국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음.

● “美, 원칙 견지..北 다자대화 언급 불투명”(9/19)

-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현 미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한국연구소 부소장)은 18일 핵문제를 양자 또는 다자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언급에 대해 “일단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음. 지난달 초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당시 동행, 김 위원장을 함께 만나기도 했던 그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보도가 정확한지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그는 김 위원장이 언급했다는 다자 대화와 관련, “보도가 정확하더라도, 그런 언급이 북한이 6자회담으로 되돌아오겠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또는 또 다른 형식의 다자 회담을 제안하려고 하는 것인지, 혹은 북한이 여러 국가들과 다양한 양자회담을 가질 계획인지 우리는 모른다”고 말했음. 그는 또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언급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는 모호하다”면서 “북한은 여러 차례 핵무기 포기를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음. 그는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으로 되돌아 와야만 한다는 것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끝내야 한다는 원칙에 의거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 美여행사, 호화판 북한관광상품 출시 계획(9/18)

- 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호화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의 '리모트 랜즈' 여행사가 최초의 호화 북한관광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8일 전했다.
- 이를 위해 이 여행사의 캐서린 힐드 대표는 2주전 북한을 직접 방문, 평양과 비무장지대, 묘향산 등을 둘러봤다며 "북한은 여행하기에 매우 흥미있는 나라였으며 사람들은 매우 친절했다"고 VOA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사람들이 북한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여행계획을 준비 중"이라며 "새로운 세계에 대해 알기를 원하는 모험심 강한 사람들이 북한 여행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관광상품 계획이 초기단계여서 구체적인 일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관광객들이 개인 제트기로 중국 베이징까지 가서 최고급 호텔에서 하루 묵은 뒤 다시 개인 제트기나 상업용 항공기 편으로 평양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리모트 랜즈사는 보도자료에서 "북한 내에서는 어디든 여행할 수 있다"며 "북쪽 지방의 산이나 동해안 비무장지대(DMZ)의 바닷가를 찾거나 평양에서 아리랑 축전을 관람할 수 있고 학교와 병원, 농장이나 공장을 방문해 북한 주민들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숙소로는 북한의 최고급 호텔이 이용되며, 일류 요리사가 직접 음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사는 이러한 맞춤형 북한 관광 경비로 1인당 하루 최소 1천 달러를 잡고 있다고 밝혔다.

● “北, 美에 평양과기대 기자재 허용 요청”(9/18)

- 북한 당국이 미국 상무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평양과학기술대학에 대한 컴퓨터 등 첨단 교육기자재의 반출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김진경 평양과기대 총장이 밝혔다. 김 총장은 18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평양과기대의 개교를 위한 가장 큰 과제로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극복하고 학교 내에 기자재를 원활하게 반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북한 당국은 미 상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특히 평양과기대가 반입하려는 기자재에 대한 미국측의 검색도 받아들일 것이며, “그들(미국)이 원하면 언제든지 (북한에서) 되가져 나갈 수 있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안다고 김 총장은 부연했다.
- 김 총장은 평양과기대는 “국제대학으로 대학 특구처럼 돼 있다”며 “마치 외교 공관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컴퓨터 등을 공관에 가지고 들어가듯 우리도 실습 기자재 등을 북측에 기증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모든 법적 소유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 미국 국무부는 이 학교 준공식과 관련해 지난 7월 김 총장에게 보낸 국무부 관계자 명의의 축하 메시지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 미 정부가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한국 정부는 이 학교의 개교와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과학장비 반출에



‘이중용도 물자’라며 현재 난색을 표시하고 있고, 남측 교수진의 남북 강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美 “북·미대화, 유엔총회 뒤 결정”(9/18)

- 미국은 17일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북한과 양자대화를 가질 용의가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면서 결정이 매우 가까운 장래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힘.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미 양자대화 여부와 관련, “역내 파트너들과 협의를 계속한 뒤 매우 가까운 장래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함. 크롤리 차관보는 “유엔 총회기간에 대통령과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에 관심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개별적인 대화를 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면서 “유엔 총회를 끝내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힘.
- 그는 “우리는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양자대화를 가질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혀 왔다”면서 “아직 그렇게 하겠다는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함. 크롤리 차관보는 이어 일본의 새 정부가 북미 직접대화에 반대할 수 있다는 지적에 “우리는 대북 전략과 관련해 정말 폭넓은 의견일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함.
- 하지만 그는 “일본이 가진 어떤 생각도 환영할 것”이라면서 “먼저 (일본의 새 정부와) 논의를 가진 뒤 우리의 현재 생각에 어떤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미국 입장의 변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음. 그는 “우리는 일본 정부와 광범위한 대화를 가져왔음. (정권의) 변화가 막 있었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비교해 볼 것”이라면서 “일본의 새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가질 수도 있는 어떤 바뀐 생각도 알아볼 것”이라고 말함. 그는 또 “일본은 6자회담에서 완전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이와 관련, 그는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일본을 방문 중임을 지적하며 “캠벨 차관보가 일본의 새 정부와 광범위한 문제들을 논의할 것이며, 북한 문제도 대화의 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힘. 그는 “우리는 (일본의) 새 정부에 우리가 지역의 파트너들과 가졌던 다양한 논의들을 전해줄 것”이라고 덧붙였음. 그는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의 모든 참가국들 사이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의견일치가 형성돼 있으며, 6자회담이 이를 위한 가장 유용한 수단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 이행한다는 데 대해 분명한 의견일치가 있다”고 강조함.
- 이 밖에 그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유엔 총회를 앞두고 18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가질 관련 연설에서 비확산 문제와 이란, 북한, 식량안보,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이 두루 다뤄질 것이라고 전함.



● 美,인신매매 방지미흡 대북 비인도적지원 금지(9/18)

- 미국은 북한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 대해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부족을 이유로 2010회계연도 비인도적 지원을 금지키로 함. 미국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명의의 대통령 결정문을 통해 북한과 짐바브웨, 미얀마, 쿠바 등 8개국을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에 따른 특정 자금 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17일 확인됨.
- 오바마 대통령은 결정문에서 이들 국가가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에 따른 최소 기준을 충족하거나 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특정한 자금을 지원하지 말도록 지시함.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 관련 조항은 지원금지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인도주의나 통상관련 자금을 제외한 대외원조자금 등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돼 있음. 하지만 미국은 이미 북한에 대해 인도주의 외에 다른 명목의 원조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실질적인 변화는 없음. 북한은 최근 해마다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에 따른 지원금지 대상으로 지정돼 왔음.
- 이에 앞서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인신매매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신매매 상황을 최악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음. 북한은 이 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최악 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대북 6대 인센티브 가능” <美의회보고서>(9/17)

-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대북 경제적 인센티브로 수교, 무역협정 체결, 제재 완화, 국제금융기구 가입 허용, 에너지 및 식량 지원,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 등 크게 6가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분석함.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간한 ‘북한: 경제 지렛대와 정책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가능한 대북 인센티브로 이 같은 6가지 범주를 꼽은 것으로 16일 밝혀짐.
- 이는 북미 양자 대화가 성사되면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는 데 따른 상응하는 대가와 인센티브를 북한에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설명하겠다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언급과 관련돼 주목됨.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우선 북한과의 관계정상화가 첫 번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면서 북미 수교가 당장 힘들 경우 외교적 관계를 갖지 않으면서도 대표부를 두고 있는 쿠바와 같은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힘.
- 보고서는 또 북미 관계가 정상화된 뒤 미국은 북한과 상품, 서비스, 투자와 관련된 무역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면서 이는 2001년 미국과 베트남 간의 협정을 모델로 할 수 있다고 예상함. 이와 관련, 보고서는 무역협정 체결로 북한 상품의 대미 저관세 수출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예상함. 아울러 결국에는 산업화가 되면서 북한 경제 자체가 커질 수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선례를 따를 수 있다고 내다봄.
- 다만, 보고서는 무역협정 체결은 미국으로서는 중요한 협상의 수단



인 만큼 최소한을 얻으면서 이를 바꾸지 말아야 할 것임을 지적함. 아울러 지금의 대북제재로 미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세 번째 인센티브로 꼽았음. 이와 함께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금융 기구에 북한이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도 대북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함. 특히 세계은행이나 ADB에 북한의 경제전환 지원을 위한 특별펀드를 설립할 수도 있다면서, 이 펀드에는 한국과 일본의 자금이 참여할 수 있다고 전망함.

- 이 밖에 대북 에너지와 식량 지원도 재개할 수 있으며, 또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인센티브로 검토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힘. 한편 이 보고서는 북한이 연간 10억 달러가량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함. 지난해의 경우 북한은 28억달러를 수출했고, 41억달러 규모를 수입한 것으로 분석함. 보고서는 북한의 절박한 경제상황이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해체시킬 수 있는 일부 지렛대를 제공한다고 밝힘.

● <北, 美에 전방위 외교 공세>(9/16)

- 북한의 대미 외교공세가 오바마 행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의회와 민간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음. 북한은 지난달 초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초청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도 북미 정부간 양자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임. 이런 가운데 북한은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에게도 적절한 시점에 방북해 달라는 공식 초청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이 케리 위원장을 초청한 것은 이러한 그의 영향력과 함께 스스로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사와 의지를 가진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1994년 체결된 북·미간 제네바합의가 휴지조각으로 변하는 과정에 미국의 대북 중유제공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도 큰 요인으로 지적되는데 이는 클린턴 민주당 정부에 대한 공화당 의회의 견제때문이었다는 게 정설임.
- 북한으로선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발사와 5월 제2차 핵실험, 그리고 미국이 지원하는 식량 수령 거부 등으로 인해 악화된 미 의회의 분위기를 개선해 앞으로 북미 양자대화에 대한 의회의 지원과 지지를 얻는 고리로 케리 위원장을 잡은 것으로 보임. 더구나 전임 부시 정부가 대북 압박 위주 정책을 펼 때도 의회에서 대북 협상론으로 균형을 잡아주던 톰 랜토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과 공화당 소속이면서도 협상론을 폈던 짐 리치 하원 아·태소위원장이 사망하거나 은퇴함으로써 북한으로선 이들을 대체할 중량감있는 인물이 아쉬운 처지임.
- 상원 외교위의 공화당측 간사인 리처드 루가 의원은 공화당이 의회를 지배할 때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역시 대북 협상파로 분류가 가능함. 당시 민주당측 간사로 루가 의원과 협력했던 조 바이든 의원



은 부통령으로서 상원 의장임. 상원 외교위원회의 프랭크 자누지 전문위원도 직접 북한을 방문하는 등 북한과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어 북미간 협상을 지원할 수 있는 무게감있는 인물임. 그는 대선 때 오바마 진영의 한반도정책팀장을 맡기도 함.

- 북한 당국은 뿐만 아니라 미국의 민간단체와 주요 인사들의 방북도 대거 받아들이는 등 민간분야와 접촉 및 교류도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6일 소식통을 인용, “최근 북한이 단체인지 개인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25건에 달하는 미국인의 방북을 허용했으며 이에 대한 비자 발급도 승인했다”고 전함.
- 이와 관련,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문화 교류와 경제개발 등 민간 차원의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북단을 구상하고 있다”며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 분위기와는 별도로 미국과 북한간 민간 차원의 접촉도 추진되고 있다”고 말함.
- 이는 북한만의 일방적인 대미 구애가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도 북미 정부간 양자대화와 앞으로 협상의 성공을 위한 신뢰기반 조성 차원에서 대북 경제·문화교류를 강화해 나가려는 생각임을 보여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을 초청해 장시간 면담을 가진 것을 계기로 상반기에 비해 확 달라진 북한의 대미 외교공세는 ‘150일 전투’식 ‘총공격전’을 연상케 함.

● 미국무부 관계자 “평양과기대 발전 힘껏 돕겠다”(9/16)

- 미국 국무부가 남북 첫 ‘합작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준공을 앞두고 이 대학 총장 내정자인 김진경 연변과학기술대학 총장에게 축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짐. 평양과기대 설립을 지원하는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관계자는 16일 “미 국무부의 축전은 7월21일 왔는데 이는 평양과기대 준공식이 당초 7월26일로 잡혔었기 때문”이라며 “김 총장이 미국 시민권자로, 이 대학 총장에 취임할 것이기 때문에 축전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함.
- 평양과기대 준공식은 개성공단내 현대아산 주재원 유성진씨의 억류 문제 등으로 인해 늦춰지다 16일 평양 현지에서 열리게 됐음. 그는 축전 내용에 대해 “그냥 통상적인 축전으로 보면 된다”고만 말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음.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국무부 정식 서한은 아니고 국무부 관계자가 보낸 사신 형태의 메시지”라며 “좋은 소식이다. 우리도 할 수 있는 힘껏 돕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함.
- 미국의 소리(VOA) 방송도 이날 국무부의 축전에 대해 “준공식(에 대한 북한의) 승인을 ‘대단한(great)’ 소식이라고 언급한 뒤 학교 발전을 위해 미 정부가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함. 국무부 축전가운데 ‘우리’라는 표현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평양과기대와 미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평양과기대 공동설립위원장(co-chairman)인 미국 라이스대 교수를 포함해 여러 지인들이 미국에 있는 만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국무부 관계자를 포함해 미국의 관계자들을 지칭할 수도 있다”고 말함.

● 美태평양사령관 “北 후계구도 불투명”(9/16)

- 티머시 키팅 미국 태평양군사령부 사령관은 15일 북한의 후계 구도가 불투명해 보인다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은 미국에 큰 정보를 가져다 줬다고 밝힘. 키팅 사령관은 이날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포럼에 참석, “클린턴 전 대통령의 민간인 신분 방북은 우리에게 큰 정보를 줬다”면서 “김정일은 똑 바로 서 있었다. 힘이 있어 보였고 논리적 토론을 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클린턴 전 대통령과 그렇게 했다”고 말함.
- 그는 “우리는 그런 (김정일의) 능력들에 대해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한 이후인) 지금보다는 덜 확신을 가졌었다”고 밝혀 지난달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이 북한 지도부 상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됐음을 내비침. 키팅 사령관은 하지만 김정일 사후에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른다면 “후계구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함. 그는 그러나 더 이상의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음.
- 키팅 사령관은 “우리는 북한을 가능한 한 조심스럽게 주시하고 있다”면서 “(과거에 한 것이) 핵실험이었다면, 북한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지속적인 도발을 예상함. 그는 이어 북한이 2006년 이후 2차례 대포동 미사일 실험을 했음을 지적하면서 “이들 중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함. 이와 관련, 그는 “우리는 필요한 군사적 행동과 능력이 무엇이든 간에 방어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이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함.
- 또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북한의 보유 핵무기 수나 농축 우라늄 문제 등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면서 즉답을 피함. 그는 “북한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고 있다”면서 “그들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들의 관련 시설이 무엇이든 사찰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함. 그는 “태평양군사령부는 증명할 수 있는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국무부의 노력을 굳건히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함.
- 이 밖에 그는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와 관련, “우리는 동맹국인 한국과 굳건하고 일관된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면서 “(전시작전권 이양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함. 그는 한국 내 일각에서 작전권 이양 연기 주장이 나오고 있음을 거론하면서 “우리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장관급 회의에서 작전권 이양을 재확인했다”면서 “이는 성취할 수 있으며, 우리는 한국과 (이와 관련된) 중요한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힘.



- 한편 그는 일본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미일간 군사동맹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우려하지도 않는다고 말함. 또 미중 군사관계와 관련, “중국을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도 우리를 위협으로 보지 않기를 원한다”면서 양국 군사협력에 대해 “신중한 낙관론을 갖고 있다”고 밝힘. 그는 잠수함, 사이버전 관련 움직임을 포함한 중국의 군사적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아시아에서 재난 발생시 군사적 협력을 하는 방법을 통해 양국간의 관계를 증진시키길 원한다고 덧붙였음.

● “北·美 대화는 북한의 외교적 승리” <러 신문>(9/15)

- 미국이 북한과 양자 대화에 나서기로 한 것은 북한의 외교적 승리로 해석될 수 있다고 15일 러시아 정부 기관지 로시스카야 가제타가 보도함. 신문은 일련의 로켓 발사, 핵실험, 우라늄 농축 실험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응하고 한국도 미국의 결정에 따르게 된 것은 어찌 됐건 북한이 외교적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지적함.
- 그동안 북한의 1대 1 양자 대화 요구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거절해온 미국은 지난 11일 결국 직접 대화를 하기로 함. 미국 국무부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는 당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가 북한을 6자회담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직접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시간과 장소는 앞으로 2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
- 크롤리 차관보는 브리핑 직후 미국의 대북 정책이 유연해 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단기적인 정책일 뿐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로시스카야 가제타 지는 세계의 전문가들과 언론은 북한이 승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힘.
- 특히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화의 기회를 얻은 것뿐 아니라 (협상에서도)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 소극적 대응을 해온 한국 정부는 억울하지만, 북한의 뜻대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신문은 주장함.
- 크롤리 차관보의 발표 다음날 우리 외무부는 미국과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발표함. 신문은 미국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은 확실해 보이며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어떤 조건으로 두 여기자를 북한에서 빼냈는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제는 무엇을 제안했는지 확신하게 됐다고 전함.
- 신문은 그러나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주 미국, 일본, 한국으로부터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지지를 얻어냈고 러시아 측 6자회담 차석 대표인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외교부 본부 대사도 서울 방문 시 북미 대화에 대해 지지를 표시한 점으로 미뤄 미국이 6자회담 내 다른 당사국들의 입장을 잇는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함. 그러면서 신문은, 전문가들은 9월 말과 10월에 한반도 상황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선의 경우 6자회담이



재개되고 북미 외교 채널이 다시 가능할 것으로까지 예상하고 있다고 전함.

- 한편, 미국 정부는 북·미 대화의 시기와 형식이 2~3주 내에 결정돼 가시화된다고 하더라도, 양자 대화는 6자회담과 분리된 별도의 협상이나 프로세스가 아닐 뿐 아니라 6자회담의 대체물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또 오는 21~25일 뉴욕 유엔총회 기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북한 관리들과 만날 가능성도 아직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짐.

● “김정일, 또 한 번의 승리” <WSJ> (9/15)

-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북한과의 양자대화 의사를 밝힘으로써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또 한 번의 승리를 거뒀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 밝힘. 신문은 이날 ‘김, 또 한 번 승리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11일 북핵 6자회담을 구하기 위해 북한과 양자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외교를 살리려고 자신의 외교를 스스로 훼손한 셈이라며 이같이 말함.
-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북한에 (약수하려고) 편 손을 내밀었지만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강행, 우라늄 농축 인정에 이어 6자회담을 거부하고 올해 말에 또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있다며 이는 미국에 주먹을 날리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신문은 지적함.
- 저널은 이어 ‘같은 말(馬)을 두 번 사지 않겠다(게이츠 국방장관)’, ‘위반에는 응징이 따라야 한다(오바마 대통령)’ 등 미 정부가 한 말들을 고려하면 북한이 오래 요구해온 양자 대화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훨씬 당연해 보인다고 밝힘. 그러나 저널은 P.J. 크롤리 국무부 대변인이 “양자 대화를 통해 6자회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안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했다면서 양자 대화를 하지 않아야 할 4가지 이유를 제시함.
- 첫째는 양자 대화가 6자회담의 즉각적인 재개가 아니라 죽음을 가져올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양자 대화로 인해 미국이 동북아의 우방, 특히 한국, 일본과 구축한 연합전선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다는 것임. 셋째는 북한이 적들을 분열시켜 개별적으로 타협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넷째는 미-북 양자 대화가 아들에게 권력 세습을 준비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내부 지배력을 강화시켜준다는 것이라고 저널은 지적함. 저널은 오바마 행정부의 국무부 표어는 ‘현명한 힘’이라며 “이것이 현명한 것이냐”고 반문함.

● 美 “6자밖에서는 北과 어떤 실질대화도 안해” (9/15)

- 미국은 14일 6자회담 틀 밖에서 이뤄지는 북한과의 어떤 대화에서도 실질적인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조만간 이뤄질 북미 양자 대화의 목적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설득에 국한될 것이라는 입장



을 거듭 밝힘.

-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6자회담 맥락 밖에서는 북한과 어떤 실질적 양자대화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줄곧 밝혀왔다”면서 “우리의 목적은 북한을 6자회담과 그 맥락으로 복귀시키는데 있다”고 밝힘.
- 이는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북미 대화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외에 실질적인 북핵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임. 켈리 대변인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성 김 대북특사가 (아시아) 역내를 방문, 카운트파트들과 북한을 이룬(6자) 회담으로 되돌아오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그들이 논의한 것 중 하나가 이 (보즈워스 특별대표에 대한 북한의 방문) 초청”이라고 말함.
- 그는 이어 북한의 보즈워스 특별대표에 대한 방북 초청이 언제 있었느냐는 질문에 “초청은 꽤 최근에 왔다”고 전함. 그는 또 북한의 초청이 이미 수주 전에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것은 단순하고 비공식적인 초청이었다”고 덧붙였음.
- 켈리 대변인은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평양 방문 의제가 논의됐으며, 최근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역내 방문을 통해 6자회담 참가국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그러나 아직 우리가 그(보즈워스)의 평양 방문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함.

다. 중·북 관계

● 北김영춘, 中장성 만나(9/19)

-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인 김영춘 차수가 19일 첸리화(錢利華) 중국 국방부 외사판공실 주임을 만났다고 평양방송이 보도했음.
- 방송은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이날 “국방부 외사판공실 주임인 첸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인민해방군 외사일꾼 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했다”고 전했으나 대화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음. 이 자리에는 북한군 장성·장교들과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 대사와 육군 무관이 배석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 지난 17일 방북한 첸 주임 등 대표단은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고 6.25기념관인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판문점, 북·중 친선탑인 ‘우의탑’ 등을 참관하고 집단체조 ‘아리랑’도 관람했음. 첸 주임은 미국, 한국, 일본 등과도 군사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인물임.

● 후진타오, 김정일에 한반도 비핵화 강조(9/18)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게 친서를 보내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강조했음.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평양발 기사에서 후진타오 주석이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 중인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통해 전달한 친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보도했음.

- 후 주석은 친서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증진하는 것은 중국의 일관된 목표”라면서 “중국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음.
- 후 주석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북·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면서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미래를 준비하고 이웃 국가와의 관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정신에 입각해 중국은 북중 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음.
- 다이 위원장은 16일 평양에 도착해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회담하고 17일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났으며 김정일 위원장과 18일 면담한 만큼 이날 오후 또는 19일께 귀국할 것으로 예상됨.

● 北김정일, 中후진타오 친서 접수(9/18)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8일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특사로 방북중인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나 후 주석의 친서를 전달받았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음. 김 위원장은 또 다이 국무위원과 “두 나라 친선관계를 변함없이 발전시킬 데 대해서와 서로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화기에 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이 면담에는 북한의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배석했음.
- ‘서로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는 6자회담 재개를 포함한 북한 핵문제와 북미, 남북관계를 비롯한 북한의 대외관계 등이 망라됐을 것으로 보이나 중앙방송은 면담 내용에 대해 더 이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음. 다이 국무위원이 후 주석의 친서와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전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은 사의를 표시하고 후 주석에게 인사를 전했다는 방송은 말했음.

● 北 “중국요리 배우자”..中에 100명 파견(9/18)

- 북중 우의(友誼)의 해를 맞아 북한이 최근 중국에 요리사들을 대거 파견, 중국 요리 배우기에 나섰다. 40명의 북한 요리사가 지난달 28일 광저우(廣州) 신동광(新東方)요리학교에 도착, 광둥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중국의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가 18일 보도.
- 이들은 북한의 1, 2급 호텔에서 근무하는 요리사들로 1년간 체계적으로 광둥요리를 배우게 됨. 이들 외에도 각각 30명으로 구성된 북한 요리사들이 베이징과 양저우(揚州)로 파견돼 중국 요리를 익히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광둥에 파견된 한 북한 요리사는 “평양에는 중국 음식점이 한 곳뿐으로 광둥 요리를 전문적으로 취급한다”며



“광둥요리에 능숙하지 않아 제대로 배우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 후진타오, 김정일에 한반도 비핵화 강조(9/18)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게 친서를 보내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강조함. 관영 신화통신은 이
날 평양발 기사에서 후진타오 주석이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중
인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통해 전달한 친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보도함. 후 주석은 친서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증진하는 것은 중국의
일관된 목표”라면서 “중국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함.
- 후 주석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북·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
다”면서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미래를 준비하고 이웃 국가와의 관
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정신에 입각해 중국은 북·중 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함.
- 다이 위원장은 16일 평양에 도착해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회담하
고 17일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났으며 김정일
위원장과 18일 면담한 만큼 이날 오후 또는 19일께 귀국할 것으로
예상됨.

● 다이빙궈, 김영남과 北·中관계 논의(9/18)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자격으로 북한을 방문중인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17일 김영남 북한 최
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나 양국 관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8일 보도함.
- 김영남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
임위원장에 대해 인사를 전해 달라고 말하면서 중국의 건국 60주년
을 축하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김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 아래 중국 인민들이 발전을 계속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함. 그는 “양국의 우호 관계 발전에 대한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의 입장은 매우 확고하다”면서 “북한은
중국과 함께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함.
- 다이 국무위원도 “중국 정부와 인민은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매우 소
중히 여기고 있으며 양국 우호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기 위해 교
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는 우방궈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
달함. 두 사람은 북핵 문제와 6자회담 등 한반도 문제도 논의했을 것으
로 관측됐지만 신화통신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도하지는 않았음.

● 北-中, 의학과학 협조계획서 조인(9/15)

- 북한 보건성과 중국 위생부가 14일 베이징에서 올해부터 2011년까
지 이뤄질 양국 간 ‘보건 및 의학과학 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집행



계획서'를 조인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함. 조인식에는 북측에서 최창식 보건상과 주중 북한대사가, 중국 측에서 장모 위생부 부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가했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과 중국은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다양한 교류 행사를 하고 있으며,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다음달 4~6일께 방북, 6일께 평양에서 열리는 '조·중 친선의 해' 행사 폐막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짐.

라. 기타

● “北 최대의 평성시장 폐쇄” <WSJ>(9/20)

- 북한이 최대의 비공인 시장인 평성시장을 지난 6월 폐쇄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 인용해 19일 보도했음. 신문은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중국에서의 사업을 위해 북한을 떠난 사람으로부터 이번 주에 이를 확인했다면서 평성시장 폐쇄는 시장 활동의 확산을 늦추려는 북한 당국의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신문은 북한 당국이 시장 단속을 2005년부터 시작해 지난해 더 강화했다면서 평성시장에서는 3만개의 가게가 장사를 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음식과 의류, 중국산 상품들이 거래됐다고 소개했음. 신문은 북한에서 개인들이 음식과 상품을 거래하는 비공인 시장들은 당국에 의해 용인돼 오다 2005년부터 단속이 시작됐지만, 당시 교역업자나 탈북자들이 대부분의 마을과 시에서 상당 수의 시장이 열리는 것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는 등 당국의 시도는 실패했었다고 전했다. 신문은 6월 이후 평성에 2개의 작은 시장이 형성됐지만 많은 상인들은 집에서 물건을 거래하고 있다고 소개했음.

● “한·미, 김정일 체제 보증 검토” <아사히>(9/17)

-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 핵 폐기의 대응 조치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북한의 현 체제 존속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복수의 6자회담 소식통을 인용해 17일 보도함. 신문에 따르면 이는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임.
- 신문은 한미 양국이 검토하는 것은 권력 승계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3남 정운씨 등 차세대 체제도 포함하는 것으로, 북한 지도부가 가장 중시하고 있는 '체제유지' 보증을 통해 핵 폐기를 이끌어 내기 위한 포석으로 평가함. 미국은 현재 마련 중인 대북 포괄 제안의 핵심 항목으로 이를 포함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함.
- 포괄 제안에 체제 보증을 의미하는 문구가 들어갈 경우 실제로 북한이 납득할 만한 조치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신문은 전망함. 그러면서 신문은 2005년 9월 6자회담 공동성명에 북·미 국교정상화를 지향한



다는 방침을 명기한 만큼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대규모 경제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또 체제보증의 대가로 북한에 대해서는 모든 핵무기와 핵 관련 물자, 관련 시설의 외국 반출 등 ‘검증 가능한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지적함. 그러나 미국 사회에는 인권침해가 심각한 북한의 독재 체제를 인정하는데 대한 거부 반응이 강해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최근 한·중·일 순방에서도 포괄제안과 관련, 기본 구상 등에 대한 의견 교환만 이뤄졌을 뿐 체제보증을 포함할지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함. 아사히는 “그럼에도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포괄제안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며 “그는 북한의 여러 당국자와 접촉하기 위해 북미대화도 제3국이 아닌 북한 평양에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 <李대통령, 북핵 ‘진정성·국제공조’ 재확인>(9/15)

-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연합뉴스와 일본의 교도통신 공동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원칙을 분명하게 재확인함. 북한이 올해 봄 이후 위협공세와 갑작스런 평화공세, 그리고 다시 ‘우라늄 농축 실험 성공’이라는 위협카드를 구사하는 등 혼란스런 신호를 보이고 있지만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원칙의 견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됨.
- 특히 미국 정부가 최근 6자회담 복귀를 위한 북한과의 양자대화 방침을 천명했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관련국과 충분히 컨센서스를 도출한 결과라는 점을 이 대통령은 다시한번 분명히함. 이 대통령의 이날 회견에서 드러난 정부의 북핵 원칙은 ‘북한의 진정성과 국제공조’로 요약할 수 있음.
- 우선 이 대통령은 “북한이 그러한(국제 대북공조로 인한)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대미, 대남, 대일 다소간 유화책을 쓰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과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함.
- 특히 이 대통령이 “북한이 아직도 경제협력을 받으면서 핵 문제는 그냥 시간을 끌어 기정사실화하려는 목표가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한 대목에서는 이른바 ‘비핵화’와 관련된 의미 있는 진전이 도출되기 전에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성급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엿보임. 이 대통령의 인식 속에는 2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것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내재돼 있음.
- 국제사회의 감시 속에 남태평양과 대서양을 향해하던 북한의 강남호가 회항한 일이나 북한의 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압류되는 사건, 그리고 국제 금융계의 ‘돈



줄죄기'가 북한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것이 북한의 유화책을 불리일으켰다는 것임. 이 대통령이 “북핵실험 이후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돼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했다”면서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읽힘.

- 이 대통령은 이런 일들이 강력한 국제공조에 의해 가능했다고 강조함.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합심해서 같은 전략으로 북한 핵을 포기시키려는 노력을 가중해야 한다”는 것임. 최근 미국이 북한과의 양자대화 방침을 천명했지만 그 이전에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협의를 거쳐 ‘6자회담의 맥락에서 6자회담의 복귀를 위한’ 목적에서만 대화를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에서 보듯 북한을 상대하는 나머지 5개국의 ‘합심’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
- 나아가 이 대통령은 “일본 입장에서 보면 남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그럴수록 6자회담 회원국들이 북한 핵을 포기시킨다는 기본 입장에서는 서로 확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함.
- 정부 소식통은 “북핵 문제를 풀려면 긴 호흡으로 국제공조를 유지하며 북한의 전술에 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핵문제에서 본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함. 다만 북한 또는 북한 핵문제를 바라보는 관련국들의 이해관계나 주안점이 다른 상황에서 효율적인 공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축적이면서 전체국면을 관통하는 대책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을 외교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음.
- 특히 미국과 북한간 대화가 현실화될 경우 북핵 국면이 현재보다 훨씬 ‘유동성 높은’ 단계로 비화될 것이고, 대화의 양주체인 미국과 북한은 물론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등이 보다 유리한 상황에 서기 위해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창의적 역할’을 높일 전략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견해임.

● “김정일, 기억 확실·양손 사용”(9/15)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기억도 확실했고 양손도 자유롭게 움직였다” 평양 공연을 위해 러시아 문화사절단을 이끌고 최근 방북해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한 파벨 오브산니코브 러시아 21세기 관현악단 단장 겸 수석지휘자는 15일 자 요미우리(讀賣)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함.
- 지난 8일 공연 전후로 김 위원장을 면담한 그는 “김 위원장은 기억이나 말투가 확실했다. 양손도 자유롭게 움직였고 담배도 피웠다”고 전함. 오브산니코브씨는 김 위원장이 신장 2m인 자신을 보더니 “상당히 크군요”라고 말하면서 웃었다고 함. 또 김 위원장이 러시아 관현악단과 합동 공연한 성악가의 이름과 경력을 막힘없이 소개했으



며 러시아 가곡의 작곡가 이름을 이야기하는 등 기억력도 과시했다고 전함.

- 자신과 면담하는 동안 김 위원장은 말보로 담배를 피우고 차도 마셨으며, 악수를 할 때는 손에서 강한 힘이 느껴졌다고 소개함. 또 김 위원장은 공연을 마친 뒤 다시 만났을 때 “매우 훌륭했다”며 “우리 지휘자는 어땠습니까?”라고 반문했다고 오브산니코브씨는 전함.

● “北 김정운 주도 경제재건책 연장”(9/14)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운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경제재건 캠페인인 ‘150일 전투’에 이어 ‘100일 전투’를 시작한다고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 베이징 발로 14일 보도함. 마이니치 신문은 ‘북한 정세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생산성 제고를 위해 이달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일 전투’를 벌인다고 전함.
- 북한은 150일 전투 과정에서 석탄의 채탄 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북한이 생산하는 맥주의 상업광고방송, 상점의 서비스 향상 등 경제활동에 변화가 포착되고 있음.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국민 총동원 운동으로 지난 4월 20일 시작된 150일 전투는 16일 종료됨.
- 북한이 경제재건 캠페인을 연장한 것은 김정운의 생일인 내년 1월 8일에 캠페인의 성과를 강조함으로써 후계 이행 작업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마이니치는 분석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주한 美대사 “6자회담은 北복귀해야할 길”(9/15)

-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14일 북핵 6자회담은 북한이 복귀해야할 올바른 길이라며 미·북 양자회담을 거쳐 북한이 궁극적으로는 다자회담에 돌아와야 한다고 밝힘. 스티븐스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초청대담에서 “북한이 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막다른 골목(dead end)”이라며 이같이 밝힘.
- 스티븐스 대사는 미국 정부가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 6자회담에 선행해 미·북 양자회담을 갖기로 한 배경에 대해서는 “국무부의 설명에 더 이상 보탬 내용이 없다”며 즉답을 피함. 이어 그는 양국 국회에서 비준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전망과 관련, “미 무역대표부(USTR)의 여론수렴 작업이 내일(현지시간 15일) 마감되면 자동차 업계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한·미FTA를 진전시키기 위한 협의를 한국과 시작할 것으로 안다”고 말함.



- 그는 그러나 한·미 양국이 언제쯤 협의를 가질지에 대한 ‘시간표’는 예상할 수 없다고 말할. 또 스티븐스 대사는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에 대해 “1990년대에 평시작전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됐으며, ‘자연스러운 조치(natural step)’로 전시작전권을 넘기려는 것”이라며 “미국방부와 주한미군은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이양에 낙관적인 입장”이라고 말할.

나. 한·일 관계

● <오카다 日외상 일문일답>(9/18)

-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신임 외상은 18일 신(新) 한·일관계와 관련, “내년은 양국이 지나간 100년을 매듭짓는 동시에 새로운 100년을 여는 시점”이라며 “한·일관계를 탄탄하게 심화시키고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음.
- 오카다 외상은 이날 일본 도쿄 외무성에서 한국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천왕의 내년 방한에 대해 어떠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으나 신중하게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오카다 외상과 일문일답.

-- 한·일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있다면 설명해 달라.

- ▲ 지난 선거에서 하토야마 내각이 출범했다. 일본 전후 역사상 처음 이뤄진 본격적인 정권교체였고 일본 국민들의 기대감이 아주 높다. 하토야마 총리는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언급하고 있다. 일·한, 일·중, 일·아시아 관계를 중시한다. 저도 전적으로 같은 입장이다.

공식적으로는 무라야마 담화가 발표됐다. 그동안 일본과 한국의 정상회담에서도 다양한 언급이 있었고 합의도 있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라는 것은 일정한 합의가 이미 이뤄진 상태라고 본다. 합의에 반하는 발언을 각료가 하거나 총리가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한·일 관계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것 같다.

하토야마 현 총리는 총리 취임 이전부터 자주 “과거를 직시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왔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다. 우리가 맞이하는 내년은 지나간 100년의 매듭을 짓는 해를 의미한다. 새로운 100년을 여는 한·일관계를 염두에 두고 한·일관계를 탄탄하게 심화시키고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명박 대통령이 내년 한·일합방 100년을 맞아 일왕을 초청했다. 일왕이 방문한다면 과거사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 ▲ 천왕 폐하의 내년 방한에 대해서 그 어떠한 결론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폐하의 방한이나 혹은 언행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이어야 한다. 이것이 일본 헌법이 규정하는 바다. 그런 점



까지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검토할 생각이다.

-- 10월중 북·미대화 전망이 있다. 6자회담 개최 전 북·미대화 와 북·미관계 진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어떤가. 북한은 일본을 배제한 채 핵문제를 논의하려고 하는데.

▲ 저로서는 단 한 가지도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6자회담을 아주 중시하고 있다. 6자회담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미·북간의 대화가 이뤄진다고 해도 그건 그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좋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일본을 배제하려고 한다는 것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 바 없다. 6자회담에 대한 논의는 일본 뿐 아니라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참가 5개국에 모두 메리트(잇점)가 있다.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재개 용의가 있다. 교섭재개의 전제조건이 있다면.

▲ 저는 어디까지나 6자회담에서의 논의가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일·북 양자간 대화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 조건은 충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납치문제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겠다고 북한이 약속했는데, 이에 대한 약속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약속이행은 이뤄져야 한다.

북한은 핵문제,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6자회담의 결과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실험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과 북한간의 양자대화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로 되느냐, 마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있다.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서로 협력하고 압력을 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압력을 가하는 이유는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앉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유럽연합(EU)처럼 화폐통합까지 염두에 둔 것인가. 구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 하토야마 총리는 이미 그와 같은 언급을 했다. 그건 어디까지나 미래를 향한 목표로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현재 아시아 역내에서의 무역 상호의존도를 보면, EU보다는 심화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는 높다. 이런 면에서 상호 의존도를 심화해 나가야 하는데 경제 이외의 분야, 예를 들어 환경, 에너지, 신종 플루와 같은 보건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심화시키는 것이 당장 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통화의 통합이라는 것은 국가 주권과도 밀접한 문제로서 아시아는 여러 다양한 정치체제가 공존한다. 이런 상황에서 통화통합은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결제통화로서의 달러나 유로 이외의 아시아 주요국가의 통화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화폐단위를 만든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볼 직한 문제다.



● <李대통령, '新한일관계' 화두 제시>(9/15)

-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신(新) 일본호'를 이끌어갈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부에 한·일관계의 '새판짜기'를 화두로 꺼내들음. '새로운 일본'의 출범에 따라 과거사의 짙은 그늘에 갇힌 한·일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시켜 나가자는 메시지를 명료히 제시한 것임.
- 이 대통령은 이날 연합뉴스와 일본 교도(共同)통신 공동 인터뷰에서 "그동안 한·일관계가 꾸준히 발전해왔지만 우리가 이전보다는 한 단계 높은, 상호 완벽하게 신뢰하는 관계로 발전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강조하고 "하토야마(민주당)대표와는 당선 전이지만 그런 기대를 가질 만한 대화를 나눴다"고 소개함.
- 특히 주목할 대목은 이 대통령이 독일과 유럽연합(EU)의 관계개선 사례를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모델로 제시한 점임. 세계 2차대전의 가해국인 독일과 나머지 유럽의 피해국들이 결국 EU라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냈듯이 한·일 양국도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임.
- 이 대통령은 "가해자인 독일과 피해자인 여러 유럽 국가들의 관계가 오늘날 경제협력과 정치적인 면의 단일화가 되는 EU가 이뤄지는 과정을 보면 아시아, 특히 한·일관계가 정말 새로운 차원의 협력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함. 이는 10일 총리로 공식 선출되는 하토야마 대표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역내 협력체제인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축하자고 제안한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 보임.
- 그러나 이 대통령의 '신 한·일관계' 제안은 미래지향적 협력과 동시에 '과거사의 매듭'을 필요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외교가의 지적임. 특히 이 대통령이 내년 한·일합방 100년을 맞아 성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방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됨. 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기자회견에서 "일본 천황이 굳이 한국을 방문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밝힌 바 있음.
- 이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는 과거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그래서 나는 일본 천황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한국을 방문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방문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함. 이 대통령은 나아가 한·일합방에 대해 "한국 입장에서 보면 한일합병이라기보다는 강제병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명확히 성격을 규정지었음.
- 이는 일왕이 한국을 방문해 일본이 한국민들에게 저지른 과거사에 대해 분명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외교가는 풀이하고 있음.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깨끗이 정리하지 않고는 양국 국민간의 '심리적·정서적 거리감'을 좁힐 수도 없고 실



질적인 미래지향적 협력도 불가능하다는 상황인식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임. 이 대통령은 특히 “이게(과거사 정리)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천황 방문이 양국 관계의 거리를 완전히 없애는 마지막 하나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표명은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가야 한다는 기존 구상의 연장선에 놓여있으며 그 배경에는 ‘변화’를 키워드로 내건 하토야마 정부의 출범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임. “양국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도 하토야마 대표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거듭 ‘전향적 역사인식’을 보여준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임.
- 한·일 간 어두웠던 과거 청산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함께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해석되는 이 대통령의 이날 ‘신 한·일관계’ 제안은 새로 출범하는 하토야마 정부에 외교적 ‘숙제’임과 동시에 새로운 한·일관계의 지평을 여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반응에 외교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음.

다. 한·러 관계

● 한·러 해군, 국제해양안보 협력방안 논의(9/15)

- 러시아 태평양함대사령관인 콘스탄틴 시덴코 중장이 한·러 양국 해군의 상호 이해와 우호협력을 위해 나흘 일정으로 14일 방한했다고 해군이 15일 밝힘. 러시아 태평양함대사령관의 방한은 2003년 이후 5번째며,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을 찾은 시덴코 사령관은 15일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양국 해군 작전부대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 함정의 및 교육훈련 체계를 견학함.
- 정옥근 해군참모총장은 16일 시덴코 사령관과 오찬을 하면서 ▲동북아 역내 해상교통로 안전보장과 소말리아 해적퇴치 등 국제 해양안보 협력 ▲양국 해군 간 해상훈련 활성화 방안 ▲2010년 한·러 수교 20주년 및 러시아 태평양함대사령부 창설 100주년과 관련한 양국 해군 간 행사 협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양국은 1995년부터 한국 해군작전사령부와 러시아 태평양함대사령부 간 핫라인을 구축해 월 1회 시험통신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2차례에 걸쳐 ‘한·러 해상사고방지 이행 협의회’를 실시하는 등 해상사고 방지대책을 논의해왔음.

라. 미·중 관계

● 후진타오, 21일 미국 방문 시작(9/20)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담과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제3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1일 미국 방문길에 오름.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후 주석은 22일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무역분쟁 등 현안을 논의함.
- 후 주석은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담 ▲핵 비확산·군축에 관한 유엔 안보리 정상회의 ▲제3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 3차례의 정상회담에서 연설과 토론을 통해 국제적 위상이 강화된 중국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허야페이(何亞非)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음.
- 후 주석은 오는 10월1일 거행될 신중국 건국 6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방미에서 각종 연설을 통해 중국이 60년간 이룩한 성취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각종 국제현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을 천명할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음. 후 주석은 우선 22일 기후변화 정상회담에서 각국이 기후변화에 공동 책임을 지고 비용도 공동 부담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되 분담금을 각국이 차별적으로 나눠서 저야 한다는 중국 측 제안을 제시할 방침임.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리고 후진국이 온실가스 역제를 위한 비용을 똑같이 부담할 수는 없고, 선진국이 지금까지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도 더 내야 한다는 논리임.
- 그는 이어 핵 비확산·군축 회의에서 새로운 국제안보질서 이후 중국이 핵감축과 핵 비확산에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소개하고 핵 평화이용을 위한 중국 측 방안을 내놓을 계획임. 후 주석은 또 피츠버그에서 24~25일 열리는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국제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와 감독체계를 개혁할 것을 주장할 방침임. 후 주석은 특히 IMF(국제통화기금)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의 유동성 강화를 촉구할 계획임.

● 中, 美 타이어 보복관세 WTO에 제소(9/15)

- 중국산 저가타이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갈수록 심화하는 양상임. 중국은 14일 미국이 중국산 저가 타이어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함. 미국과 중국 양측은 WTO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60일간 협상을 통해 분쟁해결을 시도하게 되며, 만약 협상이 실패하면 중국은 WTO 위원회에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와 판결을 요구할 수 있음.
- 미국은 지난 11일 중국산 타이어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승용차와 경트럭용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3년간 35-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 첫해에는 기존 관세에 35%, 2년째에는 30%, 그리고 3년째에는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됨. 현재 중국산 타이어 수입관세는 4%임. 중국은 이같은 조치에 맞서 미국의 대(對) 중국 자동차 수출



과 8억달러 상당의 닭고기 상품을 반덤핑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위기를 몰고 온 리먼브라더스 사건 발생 1주년을 맞아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중국산 저가타이어 대한 고율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 보호무역의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니라 무역협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함. 오바마 대통령은 “무역협정 이행강제는 개방적인 자유무역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서 “패배적인 보호무역주의를 부추기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함. 이는 중국 측의 압력에 굴복해 이번 조치를 철회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임.
- 이에 따라 이번 분쟁이 극심한 침체에서 막 벗어나려는 세계경제에 부담을 줄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주요 2개국(G2)으로까지 불리는 미, 중 양국이 오는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무역분쟁에 휩싸임에 따라 G20 회원국들간의 공조에도 균열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임.

마. 미·일 관계

● <하토야마 정권, 미일관계 불안한 출발>(9/17)

-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새 정권 출범으로 미일관계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음. 하토야마 총리는 일단 16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신뢰관계’를 강조하면서 미국 내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주력함. 그는 회견에서 “(대미 관계의) 열쇠로 생각하는 것은 신뢰관계 구축”이라면서 우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신뢰관계 구축에 나설 것임을 강조함.
- 하토야마 총리는 이달 하순 유엔총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별도 회담을 할 계획임. 그는 또 사민당, 국민신당과의 연립정권 출범에 앞서 합의한 미·일 지위협정 및 주일미군 재편 검토에 대해서도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신중론을 견지함. “기본적으로는 (연립정권 출범에 앞선 합의) 방침을 바꿀 생각은 없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이들 문제에 대해 미국측에 조기 논의를 요구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임.
- 아울러 미국 언론에서 반미적인 발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던 한·중·일 중심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대해서도 미국측을 의식한 발언을 함. 그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중장기적으로 구상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그러나 결코 달려나 미국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은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상이다”라고 함. 이에 대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16일 “우리(미국과 일본) 관계의 힘과 동맹이 어떤 정치적 변화의 시험도 견딜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화답함.



- 그는 방글라데시 외무장관과의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하토야마 정권 출범으로 미일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받자 “자민당의 50년 집권을 감안할 때 일본의 새 정부 출범은 극적인 변화”라면서 이같이 말함. 일단은 양측 모두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상당히 배려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임. 그러나 양국 간 장애물은 적지 않음. 외교를 책임지는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은 당장 양국간 쟁점 가운데 하나인 핵무기 탑재 함선의 일본 기항 문제와 관련한 과거 미·일 정부 간 밀약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 시점을 오는 11월로 명시하면서 본격 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함.
- 양국 간 핵 밀약은 1960년 양국 안보조약 개정 시 일본 국내로 핵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을 반입할 때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핵무기 탑재 미 함정의 기항과 항공기의 영공 통과 등의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비밀리에 합의했다는 것임. 하토야마 총리도 총선 과정에서 이를 자세히 조사한 뒤 국민에게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오카다 외상은 또 내년 1월로 기한이 만료되는 인도양에서 미국 등 다국적군 함대에 대한 자위대의급유 지원활동을 단순히 연장하지는 않겠다고 밝힘. 미국측은 그동안 다양한 경로로 활동 연장을 요청해 왔음. 그러나 그는 미·일 지위협정 재검토 문제에 대해서는 “주일 미군 재편과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서의 테러와의 전쟁 지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난 이후 단계의 문제”라고 말함. 이들 모두 민주당이 총선 과정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던 문제들임.
- 물론 하토야마 총리나 오카다 외상 모두 이들 쟁점을 정권 출범 이후 곧바로 제기하지는 않겠다고 밝힌 만큼 당장 미·일 간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집권 이후엔 외교 정책에서 현실론이 힘을 얻으면서 쟁점 사안에 대해 재검토해 수위를 낮출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이들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마냥 늦추거나 총선 공약에서 제시했던 내용을 대폭 완화해 요구하기도 쉽지 않아 보임. 이 경우 연립 정권의 한 축인 사회당의 반발은 물론 변화를 요구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이반을 불러올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임.

● 미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17일 日 방문(9/15)

-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17일부터 사흘간 일본을 방문, 양국간 문제 및 북한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일본 외무성이 15일 밝힘. 캠벨 차관보는 이번 방문중 야부나가 미토지(藪中三十二) 외무성 차관 및 다른 관료들과 면담할 계획임. 민주당은 특히 주일미군 지위 협상의 재검토 등 미국과의 대등한 외교관계 수립을 천명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미·일 양국 관계가 도전에 직면한 상황임.



바. 미·러 관계

● <러시아, 미국의 동유럽 MD 철회 환영>(9/17)

- 러시아는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가 그동안 양국 갈등 요인 중 하나였던 동유럽 미사일 방어(MD) 계획을 철회하기로 하자 크게 환영함. 러시아 외무부의 한 관리는 “미국의 MD 계획 포기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미국 정부의 공식 확인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음. 이 관리는 “이번 결정은 양국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것”이라며 “두 나라 관계 개선의 주요 장애물을 제거한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시함.
- 앞서 체코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안 피셔 체코 총리에게 전날 밤 전화를 해 MD 계획 철회 의사를 전했다고 보도했고 미국도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곧 표명할 것으로 알려짐. 부시 전 미 행정부는 지난 2007년 이란 등 소위 불량 국가의 잠재적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체코에 레이더 기지를, 폴란드에 10기 요격미사일 기지를 2012년까지 건설하기로 했고 지난해 8월 양국과 협정을 맺고 양국 의회의 비준을 기다려 왔음.
- 하지만, 러시아는 이 계획이 자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며 전략적 힘의 균형을 깰 수 있다면서 반대했고 이 때문에 미·러 관계는 악화함. 특히 러시아는 미국이 MD 계획을 추진하면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폴란드와 접한 러시아령 칼리닌그라드에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함. 그러면서 러시아는 미국 측에 MD 기지를 별도로 구축하지 말고 러시아가 임차 중인 아제르바이잔 가발라 기지 및 러시아 남부 아르마비르 레이더 기지를 공동 사용하자고 제안함.
-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졌지만, 러시아는 MD 문제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양국이 협상 중인 전략 무기감축(START-1) 후속 협정과 연계할 수 있음을 내비치기도 함.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전격적으로 철회를 결정한 것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의 비용 대비 실효성, 그리고 이란이 예상과는 달리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별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선택으로 풀이되고 있음.
- 여기에 러시아와 관계 재설정에 들어간 가운데 MD 계획에 대한 결단이 없이는 관계 진전은 물론 아프가니스탄 군사 협력 그리고 이란 핵 프로그램 등 미국이 주도하는 주요 현안에서 러시아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게 관측통들의 분석임. 미하일 마르젤로프 러시아 연방의회(상원) 외교위원장도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양국 관계 재설정을 위한 의미 있는 내용물들이 곧바로 나올 것”이라면서 이런 분석을 뒷받침함.
- 체코와 폴란드 내 MD 찬성론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란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하는데 러시아로부터 암묵적 동의를 얻어낸 것 아니냐는 이른바 ‘이란 핵-MD 교환설’이 나오고 있음. 러시아는 이란에 대해 핵 투명성을 강조하면서도 서방이 추진하는 대(對)이란 경제 제재에 대해서는 중국과 함께 반대 견해를 보이고 있음.

- 이에 대해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과 절대 ‘비밀 거래’는 없었다며 이런 의혹을 일축함. 미국은 MD 계획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식으로 역내 안보를 담보할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짐. 한편, 내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참석 차 뉴욕을 방문, 오바마 대통령과 회동하는 자리에서 MD 철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임.

사. 중·일 관계

● “中日,동아시아 공동체 검토 합의할 듯”(9/15)

- 이달 하순 미국 뉴욕에서 열릴 예정인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차기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협력해 ‘동아시아 공동체’ 구성을 검토해 나가자는데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5일 전함.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민주당의 정권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이지만, 중국과 일본 주도의 역내 시스템 구축이라는 점에서 미국 등의 반발 가능성도 있음.
- 이번 회담은 유엔총회에 맞춰 오는 23일 전후에 실시될 것으로 보임. 회담에서는 민주당 대표인 하토야마 차기 총리가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짐. 중일 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측도 이런 구상에 이해를 표시하고 있어서 후진타오 주석도 긍정적으로 답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동아시아 공동체는 통상이나 금융, 에너지, 환경, 재해 대책, 전염병 대책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하는 지역 내 시스템 구축을 지향함.

아. 기타

● 李대통령, 유엔.G20 참석차 출국(9/20)

-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오후 미국 뉴욕과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와 기후변화정상회의, G20 금융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음.
- 이 대통령은 22일(이하 미국현지 시간)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참석해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함께 그룹별로 진행되는 정상 원탁회의를 공동주재하고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 노력에 대해 설명할 계획임.
-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나라로는 사실상 최초로 올해 감축목표를 제시함으로써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



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회의에 활로를 제공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음.

- 23일에는 취임후 처음으로 유엔을 공식 방문, 제6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코리아’의 비전을 천명하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리셉션에도 참석할 예정임.
- 이 대통령은 15분간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핵비확산, 유엔 개혁 등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공적개발원조(ODA)와 평화유지활동(PKO) 등을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의지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 이 대통령은 이어 24~25일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제3차 G20 금융정상회의에 참석해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세계 경제회복에 대비한 이른바 ‘출구 전략’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힘.
- 이 대통령은 또 이번 방미기간 UAE, 캐나다, 몽골, 호주, 덴마크 등 10여개국 주요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음. 특히 23일에는 지난 16일 취임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와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열고 새로운 한일협력관계를 모색할 계획임.
- 이 대통령은 25일 방미 일정을 모두 마친 뒤 피츠버그를 출발, 26일 귀국함.

● 하토야마 총리 취임.. 日 새시대 개막(9/16)

-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총리에 취임, 일본 정치사의 새 장을 열었음. 하토야마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특별국회의 총리 지명 중의원·참의원 선거에서 제93대 일본 총리에 선출됨. 하토야마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총리에 선출되는 순간 일본의 역사가 바뀐다는 떨리는 감격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다”면서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열어가겠다”고 선언함.
- 그는 정권교체의 승리자인 국민들을 위해 정치가들이 국정의 주도권을 잡아 탈관료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함. 그는 “오늘은 역사의 전환점으로 정치와 행정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스타트의 날”이라고 역설함. 하토야마 대표는 국정의 우선순위에 대해 “정권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을 확실히 추진해 나가되 국민 가계에 도움이 되는 시책부터 펴나가겠다”고 말해 내수 진작을 위한 복지 공약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함.
- 그는 자녀수당 등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 내년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으며 신설될 국가전략국과 행정쇄신위를 가동해 예산 낭비, 행정 낭비를 줄이겠다고 말함. 하토야마 총리는 정책 공약인 ‘대등한 일미관계’ 실현과 관련 “현재 일미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관계의 구축이며 이달 하순 미국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등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신뢰관계 구축에 가장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혀



갈등보다는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함.

- 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과 관련해서도 “중장기적인 구상이지만 미국을 제외할 생각이 없으며, 미국을 제외한 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해 미국을 배제하지 않을 것임도 강조함.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국회의 총리 지명 선거가 끝난 뒤 관저에서 부총리 겸 국가전략상에 간 나오토(菅直人) 대표대행, 외무상에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간사장, 관방장관에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당대표 비서실장, 재무상에 후지이 히로히사(藤井裕久) 최고고문을 임명하는 등 17명의 내각 명단을 공식 발표함.

○ <日 내각 저돌적 정책추진 전망>(9/16)

일본 하토야마 내각 명단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鳩山由紀夫) (62) 民主黨 중의원 8선	 경제산업상 나오히라 마사유키 (直嶋正行) (63) 民主黨 참의원 3선
 부총리-국가 전략상 간 나오토 (菅直人) (62) 民主黨 중의원 10선	 국토교통상 마에하라 세이지 (前原誠司) (47) 民主黨 중의원 6선
 총무상 히라구치 가즈히로 (原口一博) (50) 民主黨 중의원 5선	 환경상 오자와 사카히토 (小澤鋭仁) (55) 民主黨 중의원 6선
 법무상 지바 게이코 (千葉景子) (61) 民主黨 중의원 4선	 방위상 기타자와 도시미 (北澤俊美) (71) 民主黨 참의원 3선
 외상 오카다 가쓰야 (岡田克也) (53) 民主黨 중의원 7선	 관방 장관 히라노 히로후미 (平野博文) (60) 民主黨 중의원 5선
 재무상 후지이 히로히사 (藤井裕久) (77) 중의원 7선 참의원 2선	 국가공안 나카이 히로시 (中井浩) (67) 民主黨 중의원 11선
 문부과학상 가와바타 다쓰오 (川端達夫) (64) 民主黨 중의원 8선	 행정쇄신 센고우 요시토모 (仙谷由人) (63) 民主黨 중의원 6선
 후생노동상 나가사카 아키라 (長妻昭) (49) 民主黨 중의원 4선	 금융우정 가메이 시즈카 (亀井静香) (72) 국민신당 중의원 11선
 농림수산상 아카마쓰 히로타카 (赤松廣隆) (61) 民主黨 중의원 7선	 쇼시카식품안전 후쿠시마 미즈호 (福島瑞穂) (53) 시민당 중의원 2선

진토일 기자 kmtail@yna.co.kr / 20090916



- 일본 정치의 새 시대를 열 하토야마 호를 이끌어갈 내각 진용이 확정되면서 정책 색깔도 선명해짐. 하토야마 총리는 “국민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표를 던졌다”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선언함. 민주당의 정권공약 실천을 위해 취임 초기부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의 표현임. 내각의 핵심에는 관료 위주의 정치에서 탈피해 정치 위주의 국정을 펼칠,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인사들을 포진시킴.
- ◇ **공약대로 밀어 붙인다:** 하토야마 총리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참의원 총회에 참석해 “오늘은 역사의 전환점으로 정치와 행정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스타트의 날”이라고 강조함. 관료 의존의 정치, 예산의 무절제한 낭비와 구태의연한 낙하산 인사 등을 뿌리 뽑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는 각오임.
- 신임 각료 중 가장 먼저 직선적인 정책을 제시한 장관은 가메이 시즈카(亀井靜香) 금융·우정문제 담당상. 연정에 참여한 국민신당 대표이기도 한 가메이는 취임도 하기전인 15일 기자회견에서 실적이 악화된 중소기업과 개인의 대출금 원금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대출금 상환 유예제도’의 도입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검토하겠다고 밝힘.
- 이는 금융기관과 중소기업 또는 개인의 계약에 국가가 개입해 중소기업이나 개인에 유리하도록 계약조건을 바꾸는 것을 의미함.
- 금융기관들이 반 시장주의적인데다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들과 서민들은 크게 반기고 나섬. 가메이 금융·우정문제 담당상은 또 자민당 정권이 임명한 일본우정의 니시카와 요시후미(西川善文) 사장에게 물러나라고 직격탄을 날림.
- 후지이 히로히사(藤井裕久) 재무상은 가솔린세 등 자동차 관련 잠정세를 내년 4월부터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음. 이는 민주당의 정권공약이지만 연간 약 2조5천억 엔의 세수 감소가 예상돼 논란이 예상됨.
- 후지이 재무상은 민주당의 복지 공약을 위한 16조8천억 엔의 재원 염출에 대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낭비를 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각종 공공예산과 행정예산의 대폭 감축이 예고되고 있음.
- ◇ **핵심 부처 강골 포진:** 포스트 하토야마를 꿈꾸는 간 나오토(菅直人) 부총리겸 국가전략국 담당상은 예산의 골격을 민주당 정권의 정책 공약에 맞게 재편성하는 작업의 총대를 땀음. 간 국가전략국담당상은 관료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가진 인물이어서 예산 재편성 과정에서도 자신의 색깔을 강하게 드러낼 것으로 보임. 행정쇄신상에 발탁된 센고쿠 요시노(仙谷由人)와 함께 행정 예산과 인건비의 대폭 삭감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됨.
- 국토교통상에 임명된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는 공공사업과 낙



하산들이 등지를 틀고 있는 산하기관 문제에 밝음. 공공사업의 예산 삭감과 낙하산 인사에 대한 조치가 주목됨. 하토야마 총리는 지구온난화대책을 밀어붙일 환경상에 측근인 오자와 아키히토(小澤銳仁) 국민운동위원장을 임명함. 하토야마 총리는 일본의 온난화가스(CO2)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로 감축한다는 혁신적인 정책을 내놨음. 산업계가 무리한 목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오자와 환경상의 돌파력이 주목됨.

- 난제중의 난제인 연금개혁과 후기고령자의료제도 폐지를 주도할 후생상은 이 분야에 밝은 나가츠마 아키라(長妻昭) 당 정조회장 대리가 맡았음. 법학도로 원칙주의자인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무상은 각료들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임. ‘평등한 대미외교’를 실천해야 하기 때문임. 오카다 외무상은 미일 지위협정 개정,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등에서 실적을 내야 차기를 노릴 수 있음. 미국에 대해 할 말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임.

● “美스타인버그, 이달말께 한·중·일 방문”(9/16)

-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이 이끄는 미국의 고위급 특사단이 이달 말쯤 한·중·일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에 나설 전망이다라고 외교소식통들이 16일 전함.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다양한 현안 협의차 이달 말쯤 아시아지역 순방에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순방일정과 대상국가는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함.
-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북한과의 양자대화 문제와 6자 회담 재개 방안,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임. 그는 최근 오바마 행정부가 ‘6자회담 촉진’을 명분으로 북한의 양자대화 요구를 수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짐.

● 中 공산당, 중앙위 4차 전체회의 개막(9/15)

- 올해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17기 4중전회)가 15일 개막돼 나흘간의 일정에 돌입함.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부터 중국 베이징의 징시(京西)호텔에 모여 국정 전반의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함. 이번 회의에서의 가장 큰 관심은 차기 대권주자로 유력한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의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임명 여부에 모아지고 있음.
- 시진핑이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임명되면 2012년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18전대)에서 후 주석으로부터 대권을 넘겨받는다는 것을 의미함. 그러나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경제사정도 좋지 않고 신장(新疆) 시위사태 등으로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시 부주석이 올해 임명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 그럼에도 시진핑이 내년 회의에서 군사위 부주석에 임명돼 차기 대권을 넘겨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함. 이번 회의에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중국 경제에 대한 향후 운용방안도 결정될 예정임.
- 이번 회의에서 '출구 전략' 도입이나 경기부양책 미세조정 여부 등 새로운 경제운용 방향이 모습을 드러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중국 내부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문제는 부정부패 척결과 당내 민주화 문제임. 중국과 홍콩 언론들은 이번 회의의 포인트는 반부패 문제 해결과 당내 민주화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주어질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음.
- 홍콩 언론들은 최근 일부 지방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공산당 당대회 대표의 5년 임기제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될 것이라고 보도함. 이번 회의의 안건으로는 공산당 사무 공개, 당내 중대결정 때 의견수렴 강화,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자 수보다 약간 많도록 한 차액선거 및 기층 당 간부 직접선거, 공무원 재산신고제 도입 등도 거론되고 있음.

● <日 오자와 영향력 갈수록 압도적>(9/15)

- “오자와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일본의 하토야마 정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일본에서 민주당이 역사적 대승을 거둔 8.30 총선이후 나오기 시작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朗) 대표대행의 ‘이중권력’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6일 출범하는 민주당 정부의 최종 당·정 인사를 사실상 오자와가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15일 보도함.
- 차기 총리인 하토야마 대표는 인사작업을 하면서 내각 인사는 자신이 전담하고, 당직 인선은 차기 간사장인 오자와에게 맡기겠다고 공언했지만 각료인사에까지 오자와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 8.30 총선이후 하토야마 대표는 오자와와 4차례 회동했는데 그 때마다 인사와 관련한 하토야마 대표의 입장이 바뀌었음.
- 총선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하토야마 대표는 “(내각 인사는) 총리에 지명된 뒤 한꺼번에 하겠다”고 말했으나 이달 3일 오자와를 만난 뒤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대표 비서실장을 관방장관에 내정함.
- 또 5일 오자와와 회동한 뒤에는 간 나오토(菅直人) 대표대행을 신설될 국가전략담당상,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간사장을 외무상에 각각 내정함. 이처럼 오자와와 만날때마다 인사상의 변화가 나타난 것은 오자와의 ‘승인’을 받은 뒤에야 인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게 하토야마 대표의 ‘현실’이기 때문임.
- 일각에서는 후지이 히로히사(藤井裕久) 최고고문의 재무상 기용 방침이나 히라노 관방장관 내정설 등이 오자와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가 격노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음.
-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하토야마 대표는 14일 오후 오자와와 12분



간 만남 뒤 기자들에게 회동 결과를 설명하면서 오자와를 ‘(당)대표’라고 2차례나 호칭에 혼선을 빚었음. 현재 오자와의 공식 직함은 대표대행이며 당 대표는 하토야마 자신 외엔 없음.

- 이는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우며 오자와의 압도적 영향력을 하토야마 대표가 확실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분석임. 민주당 내에서 오자와가 눈짓으로 움직일 수 있는 중의원과 참의원은 모두 150명인 반면 하토야마 그룹은 45명, 간 나오토 그룹은 60명,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부대표 그룹은 60명, 오다 요시히코(野田佳彦) 간사장대리의 그룹은 40명임.
- 오자와의 절대적 영향력은 거느리고 있는 의원들 수의 우위에서 나옴.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이를 자민당 식의 파벌 정치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향후 민주당 움직임은 오자와가 주도하는 ‘힘의 논리’에 따라 좌우될 것을 보임. 당권을 잡고 있는 오자와는 국회 중의원 제1회관 6층에 자신의 직계 의원들과 자신의 지원으로 당선된 ‘미녀 자객’들을 모아 ‘오자와 플로어’를 구축함.
- 자민당의 거물인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를 시소계임으로 몰아붙였던 나다가 미에코(田中美繪子.비례대표로 부활) 의원을 비롯해 ‘여성 자객’ 의원 8명을 자신의 사무실 주변에 배치함. 오자와는 측근인 야마오카 겐지(山岡賢次) 국회대책위원장과 자신의 비서출신 의원도 같은 층에 자리 잡도록 함.
- 오자와의 당내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당내 일각의 반 오자와 흐름은 갈수록 힘을 잃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견제받지않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음.

● 日 123년 사무차관회의 폐지(9/14)

- 일본 관료정치의 상징인 내각 사무차관회의가 123년 만에 폐지됨. 우루마 이와오(漆間巖) 관방부장관을 비롯한 성청 사무차관들은 14일 총리 관저에서 마지막 회의를 가짐.
- 사무차관회의는 일본에서 내각제도가 확립된 다음해인 1886년 시작돼 지금까지 정책결정의 핵심기구로 존속해왔으나 ‘탈관료’를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16일 집권함에 따라 폐지됨.
- 사무차관회의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장관들의 회의인 정례 각의 하루 전 열려 각의 안건을 사실상 결정했고, 여기서 조정되지 않은 안건은 각의에 올라가지 못함. 이 때문에 사실상의 정책 결정기구인 사무차관회의이며 각의는 사무차관들이 결정한 사안을 추인하는 ‘거수기’에 불과해 직업관료들이 모든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민주당은 사무차관회의를 폐지하는 대신 정치인 장관들이 참여하는 각료위원회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임.



[참고 1] <표> 하토야마 내각 명단(2009.9.16 발족)(연합뉴스, 9/16)

직 위	성 명	연 령	주요경력
총 리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62	민주당 대표
국가전략상	간 나오토(菅直人)	62	민주당 대표대행
총 무 상	하라구치 가즈히로(原口一博)	50	중의원 4선의원
법 무 상	지바 케이코(千葉景子)	50	참의원 의원
외 상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56	민주당 간사장
재 무 상	후지이 히로히사(藤井裕久)	77	민주당 최고고문
문부과학상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64	민주당 부대표
후생노동상	나가쓰마 아키라(長妻昭)	49	민주당 정조회장 대리
농 수 상	아카마쓰 히로타카(赤松廣隆)	61	민주당 선대위원장
경제산업상	나오시마 마사유키(直嶋正行)	63	민주당 정조회장
국토교통상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47	민주당 대표
환 경 상	오자와 사키히토(小澤銳仁)	55	중의원 6선 의원
방 위 상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71	민주당 부대표
관방장관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60	민주당 대표비서실장
국가공안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67	법무상
행정쇄신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63	민주당 정조회장
금융·우정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72	국민신당 대표
쇼시카·식품안전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穂)	53	사민당 당수

(도쿄=연합뉴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09/09/15/0602000000AKR20090915121900073.HTML>



[참고 2] <李대통령, 연합.교도 공동인터뷰 전문>(연합뉴스, 9/15)

--(연합뉴스) 신임 총리 지명, 한나라당 새 대표 체제 출범, 의원 입각과 관련해 대통령이 정책에 전념하다가 드디어 여의도 쪽을 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나도 여의도 출신인데 나는 우리 국민들이 바랄 때는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도 공직자도 바뀌어야 하고 정치권도 바뀌어야 하고 모든 분야가 바뀌어야 합니다. 국가의 목표는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한 단계 성숙한 선진화를 만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소위 내각 구성 요소도 그렇고 국회도 전문성을 가진 정치인들이 한편에선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입각도 정치에 목적을 갖고 정치를 하는 것보다 정치인이면서 동시에 전문성을 보고 한 것입니다. 선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치자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내각을 하면서도 전문성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또 세계와 경쟁하는데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그걸 감안해서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표를 특사로 보낸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지난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의 오찬에서 합의했던 야권과의 채널 정례화처럼 야당과 소통 강화를 위한 구상이 있습니까.

▲나는 여야 구분없이 항상 만난다는 전제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야당이 지금 만날 여건이 아직도 안돼 있어서 그런 것이지, 나는 항상 만날 수 있다고 열려 있습니다. 항상 만나서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야당이 대통령을 만날 여건이 스스로 안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는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내나 당외나 나는 항상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일희일비하기보다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고 임기가 끝났을 때 국가 선진화를 위해 얼마만큼 기여했는가를 국민들이 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중도실용이 서울시장 때 인터뷰할 때 나옵니다. 과거 라디오 인터뷰한 것을 보니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중도실용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갑자기 그런 구상을 가진 게 아니라 이미 중도실용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업 자체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교통개혁이나 청계천 복원 등이 모두 중도실용에서 나온 것입니다.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서민들에(분양)한 것도 여야없이, 진보나 보수 관계없이 지지할 수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을 쓰고 있고 항상 열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서민들을 얘기하느냐?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위기가 닥쳐오니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게 서민층입니다. 기업은 그렇게 갑작스럽게(위기를)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보면 기업은 이미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일수록



록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민은 그렇게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중심이 서민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교도통신) 대통령은 지난 일본 방문시 천황 방한을 초청했는데 그 가능성이나 의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가까운 미래에 방일할 계획이 있습니까.

▲한일 관계는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오고가는 사람이 일년에 500만명이 넘고 경제관계 등도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일본 천황이 세계를 다 방문했는데 한국은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천황의 한국 방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원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한일 관계에 거리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한일관계가 과거에만 얽매여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는 과거를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일본 천황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한국을 방문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방문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천황 방문이 양국 관계의 거리를 완전히 없애는, 종지부를 찍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 천황의 한국 방문이 의미있는, 또 좋은 결과가 있는, 거리감을 완전히 해소하는 마지막 방문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 그런 기대감에서 방한이 내년 중이라도 이뤄질 수 있으면 양국 간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연합뉴스) 신종플루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염려도 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패닉 현상이 있어서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이 중요하다 하니까 우리가 신종플루로 인한 희생자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체질적으로 그런 것인지, 음식의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비울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피해가 적은 지역이긴 합니다. 예방백신이 다행히 미국에서도 생산돼 수출되고 해서 (시장에) 풀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경계하되, 국민이 너무 공포심으로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언론과 방송에 요구했습니다. 대중이 어떤 주의를 해야 하고, 손을 씻어야 하고, 그런 행동 규범을 방송이나 언론이 아주 주기적으로 하자고. 요즘 많이 보도를 해서 나도 하루 열 몇 번씩 손을 씻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니까 비서실도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예방하는 것은 정부도 하고 국민도 수칙을 지켜서 경제(회복)도 세계 1등이듯 이번에



(신종플루) 피해도 가장 적은 나라로 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도 협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leslie@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9/15/0503000000AKR20090915131500001.HTML>

[참고 3] <표> **李대통령 내외 방미 주요일정**(연합뉴스, 9/14)

일시	이명박 대통령 주요일정	김윤옥 여사 주요일정
9.20(일)	서울 출발, 뉴욕 도착	
21(월)	코리아소사이어티 등 주최 오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면담 뉴욕 동포대표 집견 유엔사무국 한국인 직원 등 격려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한식오찬 뉴욕 한인봉사센터 방문
22(화)	기후변화 정상회의 개최식 기후변화 정상회의 원탁회의 기후변화 주요국 업무만찬	
23(수)	유엔총회 기조연설 미국 대통령 내외 주최 리셉션	유엔 사무총장부인 주최 오찬
24(목)	뉴욕 출발, 피츠버그 도착 동포간담회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현화 G20 정상회의 환영리셉션 G20 정상 업무만찬	미국 영부인 주최 만찬
25(금)	G20 정상회의 G20 정상 업무오찬 G20 정상회의 피츠버그 출발	피츠버그 창작공연예술학교 방문 미국 영부인 주최 오찬
26(토)	서울 도착	

(서울=연합뉴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9/15/0503000000AKR20090915068400001.HTML>